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군주의 탄생

-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 1, 2부』에 재현된
근대 왕정의 출현 -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전공
장 호 준

국문초록

본 논문은 셰익스피어가 집필한 역사극들이 중앙집권적 군주를 중심으로 정치 환경이 재편되던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근대 초기의 영국은 봉건 귀족들이 영향력을 상실하고 군주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가 등장하는 공간이었다. 당대의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수용하며 토지, 자본, 노동력 등의 생산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군주를 필요로 했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4세 1, 2부』에서 헨리 4세와 헨리 5세의 일대기를 다룸으로써 근대 초기의 영국에 등장한 절대 군주를 탐구한다.

봉건 귀족들은 과거에 누리던 특권을 되찾고자 반란을 일으키지만, 극의 진행과 함께 영향력을 상실하며 중앙집권적 군주에게 주도권을 빼앗긴다. 혈통을 중심으로 뭉친 귀족들과 중앙집권적 군주 간의 투쟁은 중세를 넘어 튜더 왕조의 군주들조차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헨리 부자는 반란군의 수장들을 격퇴하고 반란을 진압하며 봉건 귀족들을 무력화하지만, 반란을 일으킨 이들이 과거에 볼링브로크가 왕위를 찬탈하는 데 도움을 준 공신들이라는 사실은 헨리 4세의 불안감을 심화한다. 불만 세력의 뿌리는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 군주가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군주에게 상기시킨다.

한편, 셰익스피어가 그리는 할 왕자는 과거의 실책조차도 통치

에 활용하는 마키아벨리적 면모를 보이며 중앙집권적 군주로 성장한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을 지휘하며 그는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유능한 군사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한다. 대중으로부터 눈에 띄지 않을 것을 강조했던 부친과 달리, 할 왕자는 술집에서 하층민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고, 통치의 기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셰익스피어는 헨리 왕자의 대내외 정책들을 묘사함으로써 군주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셰익스피어가 그리는 헨리 4세와 헨리 5세는 중세로부터 근대 초기로의 전환기를 거치며 중앙집중적 권력을 확보하여 근대 초기의 국가 형태를 갖추고자 한 16세기 말의 군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중앙집권적 군주들이 권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그리면서도, 그들이 거둔 승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주요어 : 셰익스피어, 『헨리 4세 1, 2부』, 봉건 귀족, 절대 왕정, 마키아벨리즘, 근대 국가

학 번 : 2014-20090

목 차

국문초록	i
1. 서론	1
2. 군주와 귀족들의 충돌: 봉건 귀족의 저항과 몰락	13
3. 탕자의 귀환: 할 왕자의 개심과 군주의 권위	41
4. 결론	67
인용문헌	71
Abstract	75

1. 서론

본 논문은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헨리 4세 1, 2부』(*Henry IV Part 1 and 2*)¹⁾를 분석함으로써 귀족들로 대표되는 봉건주의적 잔재의 청산과 중앙집권적 권력 집중을 지향하는 절대 군주의 등장을 탐구한다. 근대 초기의 영국은 봉건 귀족들이 영향력을 상실하고 군주, 궁정 관료, 젠트리 계층 등 변화된 사회 구조를 반영한 계층 간 새로운 관계가 등장하는 공간이었다. 튜더 왕조의 군주들은 봉건 귀족들을 관료로 편입하고 군을 통제함으로써 권위를 확립하려 했지만, 그들은 정통성 시비로 인해 중앙집권적 권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튜더 왕조를 세운 헨리 7세(Henry VII)는 리처드 3세(Richard III)를 몰아내고 에드워드 4세(Edward IV)의 장녀 엘리자베스(Elizabeth of York)와의 혼인을 통해 랭커스터(Lancaster)와 요크(York) 가문의 갈등을 봉합했다. 그의 혈통은 랭커스터 가문과의 먼 친족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에, 이후 튜더 왕조의 군주들은 왕위 계승 자격을 둘러싼 정통성 논란에 휘말렸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4세』 연작에서 헨리 4세(Henry IV) 치하의 영국을 배경으로 봉건 시대를 거쳐 자본주의 시대로 이행하던 근대 초기의 국가를 묘사함으로써, 개인과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던 귀족들과 이들을 복속시키고 권위를 확립하고자 하는 군주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 극중의 헨리 4세와 헨리 5세(Henry V)는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봉건 귀족들의 가치관을 무력화하고 군주에게 권력을 집중하고자 한다. 요컨대, 셰익스피어가 극화한 두 군주는 봉건적 정치 체제를 따르던 중세의 군주라기보다, 봉건 경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중앙집중적 권력을 확보하여 근대

1) 『헨리 4세 1, 2부』는 이하 1H4, 2H4로 표기한다.

초기의 국가 형태를 갖추고자 한 16세기 말의 군주에 가깝다.

20세기 중반의 셰익스피어 역사극 비평은 작중 사건들과 인물들의 업적이 신의 섭리를 따르고 있다는 섭리주의적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학자인 틸야드(E. M. W. Tillyard)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기본적으로 세계가 신의 작품이며 통합된 개체라는 엘리자베스 시기의 세계 질서 개념을 따른다고 파악한다(19). 틸야드에 따르면, 튜더 왕조 성립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바라보는 셰익스피어의 시각은 튜더 시대의 역사가 홀(Edward Hall)의 사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헨리 4세가 리처드 2세의 왕위를 찬탈하며 신의 섭리를 어김으로써 랭커스터 가문의 왕위 계승자들은 요크 가문의 위협이라는 징벌을 받게 된다.²⁾ 이후 헨리 7세가 혼약을 통해 랭커스터와 요크 가문의 결합을 완성함으로써 “신의 섭리를 따르고 행복에 겨운 유기적인 역사의 결말” (the providential and happy ending of an organic piece of history; 36)을 맞이한다(66-67). 이 과정에서,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에 등장하는 할 왕자, 훗날의 헨리 5세는 특유의 정치적 지혜와 경건함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며 “셰익스피어가 세심히 계획한 국왕 유형의 화신” (Shakespeare’s studied picture of the kingly type; 275)으로 등장한다. 틸야드의 분석은 셰익스피어의 제2 사부작(the second tetralogy)을 단일하고 통합된 튜더 왕조를 향한 서사시로 파악하기에, 순응주의적이고 질서를 중시하는 애국주의적 재구성을 통해 역사극들을 바라본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Crewe 438-39).

2) 캠벨(Lily B. Campbell) 역시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이 신의 섭리를 중심에 둔 질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음을 지적한다. 왕위를 찬탈한 헨리 4세가 귀족 반란군의 위협을 받는, 다시 말해 “무는 자가 도로 물리는” (the biter bitten; 214) 서사 구조는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들이 신에게 기원했던 정의를 대표하는 것이다.

신역사주의(New Historicism)와 문화 유물론(Cultural Materialism)을 표방하는 일련의 학자들은 텔야드로 대표되는 섭리와 질서 중심의 역사 인식을 단선적이라고 비판하며, 국가 권력과 그에 대한 저항, 마녀 재판, 축제, 당시 여성의 역할 등 권력이 발휘되는 다양한 양상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한다(Dollimore 3). 돌리모어(Jonathan Dollimore)는 텔야드가 강조하는 세계 질서를 인정한다고 한들, 그것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 것이 아니며, 이미 존재하던 사회 질서 중 하나를 이념적으로 합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5). 유물론적 비평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세계관이 특정 계급과 성 역할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으로써 조화, 안정성 및 통합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와 우주론을 강조하는 텔야드의 분석과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그린블랫(Stephen Greenblatt)은 「보이지 않는 총알」(“Invisible Bullets”)에서 종교조차도 권력자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허구적인 의식임을 주장하는 마키아벨리적 관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관점은 베트남 전쟁 이후 맑스주의, 해체주의 혹은 푸코 이론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셰익스피어 연구에 비해 환멸적이고, 의식적으로 정교하며 강경한 어조를 활용하며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Crewe 440).

문화유물론적 관점은 당대 계급 간 이익의 차이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봉건주의의 쇠퇴와 셰익스피어가 집필한 역사극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유용하다. 일레로 코언(Walter Cohen)은 근대 초기의 영국에서 극문학의 발전 과정이 봉건주의가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는 서유럽에서 봉건주의가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시기에 절대 군주가 젤트리 등 다른 여러 계급의 도전에 맞서 신봉건주의적 귀족을 지지하고, 초기에 공공 극장을 장려하다가 점차 억압하는 현상을 영국과 스페인에서

극문학이 형성되는 과정과 연관 짓는다. 이를 토대로 그는 르네상스 시기 드라마의 발전의 이면에는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있었음을 주장한다(19-20). 코언의 주장은 절대 왕정을 “재편되고 재충전된 봉건적 지배기구” (a redeployed and recharged apparatus of feudal dominion; Anderson 18)라 정의하는 앤더슨(Perry Anderson)의 논의를 토대로 삼는다. 앤더슨의 논의는 절대 왕정이 귀족 계급과 부르주아지 사이의 중재자나 귀족에 대항하는 부르주아지의 도구가 아니라, 위협받던 귀족이 마련한 새로운 정치적 압주임을 지적한다(18). 하지만, 귀족의 집단적 이익을 도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왕정의 등장은 봉건 귀족들 간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상품 경제의 발달에 힘입어, 정치적,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은 국왕에게 집중되며, 귀족들은 토지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앤더슨은 이러한 현상들의 결과로 절대 왕정에서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고 중세의 주종제가 약화된다고 본다(20). 코언은 앤더슨의 논의를 충실히 따라, 절대주의 국가를 기존에 향유하던 지배권을 위협하는 사회 및 경제적 흐름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귀족 계급이 봉건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기구로 정의한다(83). 아울러 그는 봉건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지속적인 변화가 극장에서 고전 문화를 적극 활용하게 만드는 사회적 기반이라 보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극이 부분적으로 봉건적이고 중세적일 뿐만 아니라 근대적이고 자본가적 특성 역시 보유하고 있었기에, 한두 가지 개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84).

이를 바탕으로, 코언은 16-17세기 유럽의 가장 주요한 정치적 변화라 할 수 있는 “국가성의 출현” (the emergence of nationhood)을 공공 극장에서 평가할 때 역사극이 주요한 전달 수단으로 기능함을 언급한다(220). 국가 건설과 절대주의적 권력 집중은 동의어였기 때문에, 역사극

은 귀족과 국왕 간의 변화하는 관계를 반복적으로 다룬다. 르네상스 드라마에 나타나는 “봉건주의의 몰락” (the decline of feudalism)이나 “ ‘인문주의자 귀족 혹은 통치자’ 의 예술가적 탄생(the artistic creation of . . . “a humanist noble or ruler”)에 집중한 루카치(Georg Lukacs)의 연구를 인용하며, 그는 두 가지 추론을 도출해낸다. 첫 번째 추론은 근대 초기에 봉건주의가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현상을 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생산양식 간의 대립이 당대 역사극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역사극 장르에서 하층민에 대한 홀대 혹은 언급 부족은 어느 하층 계급도 주도적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했기에 빚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다(224). 그는 헨리 5세를 주인공으로 한 셰익스피어의 역사극들을 예로 들며, 반란 귀족들을 진압하고 하층 계급을 추방하는 극중 헨리 5세의 행적에서 절대주의의 선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귀족과 민중 계급에 대한 중앙집중적 왕권의 우월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225). 그의 견해는 역사극에 등장하는 군주의 영향력을 인정함으로써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에서 중앙집권적 군주의 등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관점을 뒷받침한다.

홀더니스(Graham Holderness)는 셰익스피어의 역사극들이 다루는 중세와 근대 초기의 연관성을 부정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이 봉건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겪던 당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코언과 유사한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그는 셰익스피어가 집필한 역사극들, 특히 『리처드 2세』 (*Richard II*)부터 『헨리 4세』 까지 이어지는 극의 흐름을 “봉건주의의 연대기” (chronicles of feudalism; 37)이라 정의하며, 이 극들은 “확고히 과거에 위치해 있으며, 명백히 당대 세계와는 분리된 사회 구성체” (a social formation firmly located in

the past, and distinctly severed from the contemporary world; 37)에 대한 분석이라고 파악한다(37-38). 그는 『리처드 2세』를 분석하며 국왕의 폐위로 이어지는 작중 갈등이 “중세의 절대 국왕과 새로운 마키아벨리적 권력 정치 간의 대립”(a conflict . . . between absolute medieval monarchy and new Machiavellian power-politics; 46)이 아니라 “국왕의 주권과, 유희복수라는 오래 되고 원시적인 부족, 가족 규범에 굳건히 자리 잡은 예로부터의 기사도 규범 간의 대립”(a conflict between the king’s sovereignty and the ancient code of chivalry, which is here firmly located in the older and more primitive tribal and family code of blood-vengeance; 46)이라 파악한다. 홀더니스는 1980년대까지 셰익스피어 역사극 해석 동향의 주류를 이루던 섭리주의적 역사관이나,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로 대표되는 실리 위주의 정치 철학에 기반을 둔 역사극 해석을 거부하며, 역사극들이 작가 본인이 살던 시대와는 명백히 다른 중세 사회를 그리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각각 신의 섭리와 통치자의 합리적 정치 행위를 강조하는 두 담론이 인간의 의지와 의식을 정해진 운명과 군주의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공통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중요성을 덜 부여한다고 파악한다(26). 다시 말해, 홀더니스의 연구는 중세 사회를 다룬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이 당대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역사와 현실의 관계를 파악하는 그의 관점은 그 작품들이 저자가 직면했던 16세기 영국 사회 내부의 변화를 지적한다고 파악하는 입장과 유사한 분석 방식을 활용한다.

래킨(Phyllis Rackin)은 양 방향의 해석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정치적 술수를 적극 활용하는 마키아벨리적 통치자로 대표

되는 인간의 행위 역시 작중 사건들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파악한다(68-69). 그녀는 이 두 가지 논의가 당시 변화를 겪던 근대 초기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적 문제였던 봉건적 가치와 자본주의적 관행 간의 대립과, 신적 질서와 인간적 질서 간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주장한다(45). 그는 셰익스피어의 역사극들 중 리처드 2세, 헨리 4세와 헨리 5세의 치세를 다룬 제2 사부작을 분석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사자의 무력과 여우의 교활함을 모방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에 따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상이 왕권을 전복하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군주와 그 측근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다(76). 부친의 왕위 찬탈로 인해 왕위의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할 왕자(Prince Hal)는 전투에 뛰어들고 하층민과 어울리며 명성을 얻고 군주의 자질을 학습해야 한다. 래킨의 해석에서, 왕자가 군주의 자리에 등극하기 전에 보이는 행적들은 자수성가한 신흥 젠트리 계층의 성장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기에, 결과적으로 왕자가 마키아벨리적 군주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한다(70, 76-79). 『헨리 4세』 연작에 대한 래킨의 분석은 헨리 4세의 예루살렘 원정 계획, 할 왕자의 방탕한 생활 및 귀족들의 반란 같은 작중의 갈등을 종교적 속죄뿐만 아니라 근대 초기 계급들 간의 역학 관계를 반영한 정치적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근대 초기의 영국 사회에서, 중앙집권적 권력의 형성과 함께 “국가” 개념이 정립되며 변화하는 개념 중의 하나로 “명예” 를 들 수 있다. 제임스(Mervyn James)는 국가가 무력을 중심에 둔 귀족들의 정치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명예 개념을 변화시켰음을 설명하며, 봉건 귀족들이 향유하던 명예 개념이 16세기 영국에서 사실상 사라졌음을 주장한다. 그는 기사도적 전통에 의해 “폭력의 정치”(politics of violence)로 일컬어질 정도로 귀족들

사이에서 정당화되던 폭력 행위가 시민 사회의 형성과 함께 “국가에 의한 명예와 폭력의 독점” (the monopoly of both honour and violence by the state)으로 전환된다고 파악하며, 해당 현상을 “정치의 도덕화” (moralization of politics)라고 칭한다(309). 제임스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튜더 시대의 궁정에 정립된 명예관을 “명예, 인문주의적 지혜와 프로테스탄트 종교의 통합” (the synthesis of honor, humanistic “wisdom” and the Protestant religion)이라 정의한다(309). 주군과 친우들에게 충의를 표하고, 자질 없는 왕에 맞서던 영주들이 전쟁과 정치의 규범을 형성했던 명예 관념은 도덕화를 거치며 붕괴되며, 그 대신 공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James 413).

영국의 궁정에서 국가의 개념이 확립됨과 함께, 관료로 전환된 봉건 귀족들³⁾은 무력, 예의범절 등 중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치들이 군주의 권력 유지에 기능할 수 있도록, 혹은 최소한 그렇게 보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꾀해야 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지침서가 1561년에 호비 경 (Sir Thomas Hoby)의 번역을 통해 영국에 소개된 카스틸리오네 (Baldassare Castiglione)의 『궁정인론』 (*The Book of the Courtier*)이다. 카스틸리오네는 궁정인의 자질로서 무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그 행동이 여러 사람들, 특히 “그가 모시는 왕이나 군주의 눈앞에서” (before the very eyes of his king or the prince he is serving; 72) 효과적으로 전시될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주장한

3) 스톤(Lawrence Stone)은 16, 17세기의 국민 국가들에서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로 궁정과 중앙 행정의 확장을 지적하고 있다. 국왕이 확보한 재정적, 군사적 자원이 늘어남에 따라 관료 제도가 확립되고, 귀족들은 군의 사령관, 행정부의 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국왕 중심의 행정 체제에 의존하게 된다. 과거의 지역 유지들은 궁정인이나 연금 수령자들이 되면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다(385).

다. 그는 궁정인에게 자신의 업적이 고귀한 인물과 군주의 눈에 떨 수 있도록 전장에서 일반 병졸들로부터 거리를 벌리고 수가 적은 곳을 택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72). 즉, 궁정인은 무용을 발휘함으로써 명성을 획득하는 차원을 넘어, 군주에게 신임을 얻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 카스틸리오네는 궁정인이 전장에 나서는 동기로 명예 이외의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 쓸모없는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상황을 경계해야 함을 주장한다(72). 위의 논의에서 카스틸리오네가 정의하는 명예는 “도덕화” 과정을 거쳐 중앙집권적 권력을 위해 기능하는 것이다. 요컨대, 카스틸리오네의 논의에서 궁정의 구성원들이 명예를 강조하는 목표는 절대 군주를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들을 중앙집권적 군주가 권력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읽는 방식은 도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셰익스피어가 16세기에 일어난 정치 환경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작가가 생존하던 시기로부터 200여 년 전의 군주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역사극들이 16세기 후반의 정치적 쟁점들을 담고 있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 학자들은 그의 역사극들에서 중앙집권적 권력의 대두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왔다.⁴⁾ 셰익스피어의 『헨리

4)하지던(Barbara Hodgdon)은 제임스가 지적한 명예 개념의 변화를 셰익스피어 역사극을 읽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셰익스피어가 역사극들, 특히 헨리 4세와 헨리 5세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들에서 중앙집권적 군주와 귀족들의 대립을 그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놀즈(James Knowles) 또한 『헨리 4세』 전반에 걸쳐 전개되는 사건이 16세기 군주와 귀족 세력의 갈등임을 지적한다. 그는 1막 3장에서 벌어지는 헨리 4세와 핫스퍼의 갈등을 예로 들며, 귀족들의 복종을 요구하는 절대 군주와 관습적 의식을 따르는 기사들의 대립이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들에게 친숙한 충돌”이라 파악한다(416).

4세』에서 벌어지는 반란군과 국왕 간의 대립,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에 성행했던 마상 시합을 연상시키는 핫스퍼(Hotspur)와 할 왕자의 전투는 북부 귀족의 혈통 문화와 중앙 집중화된 국가 권력 간의 충돌이라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다(Hodgdon 323). 북부 귀족들이 숭상하는 명예는 혈통, 고귀한 행위 및 가족적 유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인문주의적 학습과 프로테스탄트 종교의 영향을 받은 런던 궁정의 명예는 중앙집권화된 국가에 충성할 것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헨리 4세』 연작은 15세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사건들의 극적 재현은 16세기 후반의 사회·정치적 조건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Hodgdon 319-21).

본 논문은 코언을 비롯하여 셰익스피어의 역사극과 16세기 정치 환경 변화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견해들을 토대로, 셰익스피어가 『헨리 4세』를 통해 무력에 의존하는 봉건 귀족들의 몰락과 16세기 말의 국가관을 반영한 중앙집권적 군주의 등장을 그리고 있음을 주장한다. 논문의 1장에서는 『헨리 4세』 1, 2 부에 걸쳐 전개되는 헨리 4세와 봉건 귀족들의 충돌을 중심 소재로, 중앙집중적 권력을 확보하려는 군주와 이에 맞서 봉건적 정치체제 하의 권리를 누리려는 귀족들을 다룬다. 귀족들이 반란군을 결성하며 명분으로 내세우는 원인은 포로들로 대표되는 귀족들의 재산에 대한 국왕의 간섭과, 인척에 대한 충의를 저버린 국왕에 대한 반발심이다. 이들 중에서, 핫스퍼는 국왕에 의해 잃어버린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것을 강조하며 봉건적 가치관을 철저히 따르는 중세의 전형적인 귀족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귀족들은 리처드 2세(Richard II)를 몰아낼 당시 국왕과 맺었던 맹세를 언급하는 등 국왕에게 과거 사건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 이에 반해 국왕은 반란군의 진술을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치부하며,

과거 사건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논의를 회피할 뿐더러 오히려 반란군에게 화평을 제안한다. 이러한 대응은 헨리 4세가 반란군을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며, 그가 군사적 대처의 빠른 종결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귀족들은 헨리 4세와의 전면전을 결의하지만, 일부 귀족들의 불참으로 전력의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에서 이들의 패배는 예견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핫스퍼는 전투에서 패하고, 그가 신봉하는 군사적 무용과 명예는 봉건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해 가는 극중 세계에서 수용되지 못한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데 집착하는 핫스퍼는 당대 정치적 갈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 귀족들이 연합한 대규모의 반란군이 진압되는 과정은 봉건적 사고관을 간직한 인물들이 자본주의적 가치를 반영한 국가에 예속되는 과정을 보여 주면서도, 국왕이 국가 내부에서 불만 세력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는 데 - 즉, 반란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 실패함을 보여 준다.

2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할 왕자(Prince Hal)는 반란 귀족들과 대조적으로 성공한 궁정인의 전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왕자는 서민들과 어울리고 전장에서 공적을 세우는 등 여러 행적을 거쳐 군주의 자리에 오름과 함께, 과거에 자신과 대립했던 수석 판사(Lord Chief of Justice)와 화해하고 법질서를 수용함으로써 절대주의로의 전환을 받아들인 통치자의 위치에 선다. 왕자는 방탕한 생활로 그에 대한 평가가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그의 과오를 부친이나 적장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등 과실을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마키아벨리적 군주의 면모를 보인다. 헨리 5세로 등극하는 왕자는 법질서와의 화합을 통해 중앙집권적 권력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그는 잉글랜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군사를 동원한

원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극의 결말부에 헨리 5세가 부친의 유지를 이어받아 프랑스를 침공할 것을 암시함으로써 반란에 대한 국내의 기억을 잠재우고 영국 내부의 단결을 이루고자 하는 절대 군주의 첫걸음을 묘사한다. 이는 중앙집권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원정을 활용하는 작중 군주가 내부 반란과 구교 국가들의 침공을 맞이했던 근대 초기 영국의 군주들과 내부 불만 세력을 잠재우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군주와 귀족들의 충돌: 봉건 귀족의 저항과 몰락

셰익스피어는 『헨리 4세 1, 2부』를 통해 핫스퍼와 반란군으로 대표되는 무력 정치가 16세기의 정치적 역학 관계와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그리고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려는 봉건 귀족들의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그는 『헨리 4세』연작에서 국왕이 정점에 있는 궁정 질서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귀족들의 반란을 극화하며, 봉건 귀족들이 근대 초기의 절대 왕권에 의해 제압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 반란은 귀족들의 무력이 군주의 권력 유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군주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4세』연작의 전작에 해당하는 『리처드 2세』(*Richard II*)에서 헨리 볼링브록(Henry Bolingbroke)가 리처드 2세(Richard II)에 의해 빼앗긴 그의 재산과 명예를 되찾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귀족들의 지원을 얻고 국왕을 축출하는 과정을 극화하고 있다. 그러나 헨리 4세의 조력자들이었던 귀족들은 본인들의 명예가 국왕에 의해 짓밟혔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왕권의 안정을 위해 제압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국가의 수장으로서 권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군주와, 재산과 안전을 보장받하고자 하는 봉건 귀족들의 충돌은 근대 초기 영국의 군주가 봉건 귀족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헨리 4세는 반란 세력을 무력화하고 중앙집중적 권력을 확보하여 아들인 할 왕자가 절대 군주로서 권위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퍼시(Percy) 가문을 비롯한 귀족들의 반란은 그들이 대를 이어 보유해 온 군사력과 재산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이다. 『헨리 4세 1부』의 1막 3장에서, 헨리 4세가 퍼시 가문의 구성원들에게 핫스퍼가 전투에서 사로잡은 스코틀랜드(Scotland) 군 포로를 넘길 것을 명령하

며 벌어지는 설전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봉건 귀족과 이를 제한하려는 국가 간의 갈등을 보여 준다. 이와 더불어, 친족의 위기는 귀족들이 국왕에 대한 불신을 쌓고 그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심화하는 계기가 된다. 국왕은 웨일즈(Wales) 군과의 전투에서 사로잡힌 모티머(Edmund Mortimer)의 보석금 지불을 거부하며, 그를 궁정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반역을 사들이고, 공포와 계약하는”(buy treason, and indent with fears; 1.3.86)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 파악한다. 국왕의 입장에서 모티머는 이미 웨일즈 세력과 연합하여 국왕의 편에 서기를 거부한 자이며, 그의 존재는 귀족들이 연합하여 군주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국왕의 불안감을 심화시킨다. 벌먼(James C. Bulman)은 에식스 백작(Earl of Essex)과 같이 개인적인 명예와 혈통을 국가의 가치보다 더 높게 본 반체제 인사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궁정에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셰익스피어가 핫스퍼와 같은 봉건 귀족을 등장시킴으로써 봉건주의적 가치가 여전히 엘리자베스 왕조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극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60). 극중에서도 그들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국가의 간섭에 대한 불만과, 친족에 대한 국왕의 보석 거부로 인해 제기되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핫스퍼에 의해 명예 회복이라는 문제로 수렴되며, 귀족들로 하여금 여러 세력을 규합하여 국왕에 반기를 들 것을 결의하게 한다.

『헨리 4세 1부』의 시작과 함께 헨리 4세는 “너무나도 흔들리고 . . . 근심으로 창백해진”(so shaken . . . so wan with care; *IH4* 1.1.1)⁵⁾ 심경을 밝히며 본인이 국내외의 여러 소요 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토로한다. 잉글랜드의 서부 및 북부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 소식을 국왕에

5)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 1, 2부』에 대한 이하 번역은 Arden 판본을 토대로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게 전하는 웨스트모얼랜드(Westmoreland)의 보고는 국가를 위협하는 귀족들과 국왕 편에서 싸우는 귀족들 간의 “내전” (civil butchery; 1.1.13)을 묘사하고 있다. 웨일즈(Wales)에서는 국왕 측의 장수인 모티머(Edmund Mortimer)가 적장 글렌다워(Owen Glendower)에게 납치되면서 병력을 잃고(1.1.38-42), 북부의 홀먼(Holmedon)에서는 핫스퍼가 스코틀랜드의 장수들인 아치볼드(Archbald)와 더글러스(Douglass)를 꺾고 확보한 포로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국왕과 갈등을 빚는다(1.1.91-94). 국왕은 극의 처음에 나타난 독백을 통해, 웨스트모얼랜드가 상술한 사태들의 종결과, 중앙집권적 권력 아래 이들 세력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다.

저 반목하는 시선들이,

거친 하늘의 유성들과 같이,
한 가지 근본으로부터, 본질로부터 자랐으나
최근 내전으로부터 비롯된
내부의 충격과 격렬한 싸움 속에서 마주친 시선들이,
이제는 상호간에 질서정연한 행렬을 이루어
한 길로 행진하고 더 이상 반목하지 않기를 바라오.
지기, 친족, 동료들 상대로.

those opposed eyes,

Which, like the meteors of a troubled heaven,
All of one nature, of one substance bred,
Did lately meet in the intestine shock
And furious close of civil butchery
Shall now, in mutual well-beseeming ranks,

March all one way and be no more opposed

Against acquaintance, kindred and allies. (1.1.9-16)

파비니(Neema Parvini)는 헨리 4세의 독백이 통합과 순응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왕이 국내외의 군사적 충돌에 염증을 느끼고 구성원들 간의 조화를 바라는 것은 “제대로 꽂히지 않은 칼” (ill-sheathed knife; 1.1.17)과 같이 자신의 안위에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충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한다(195).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 헨리 4세는 원래 계획했던 성지로의 진군을 당분간 중단하고 위원회를 열어 귀족들을 소집한다(1.1.100-03). 귀족들의 위협에 대한 국왕의 두려움은 통합된 국가를 통해 구성원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진다. 캐힐(Patricia A. Cahill)은 『헨리 4세 1부』를 시작하는 국왕의 독백에서 비인격적인 구조와 질서 잡힌 계급이 개인 간 유대 관계를 대체하는 국가상이 암묵적으로 드러남을 지적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규율을 갖춘 정권을 통해 민족적 통합을 확고히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83).

극의 시작부터 헨리 4세는 자신을 향한 귀족들의 위협을 억눌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무력으로 획득한 왕권이 같은 수단에 의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홀더니스는 즉위와 함께 위협을 피할 수 없는 극중 헨리 4세의 상황을 “용기, 명예, 용맹성, 군사적 기량과 같은 기사도의 가치들” (the chivalric values of bravery, honour, valour, military prowess; 71) 이 “서로를 향한, 그리고 왕에게 맞선 끝없는 충돌” (a ceaseless conflict against one another and against the king; 71)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라 정리한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가 귀족이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고, 이후 자신

의 수하들에게 같은 식으로 위협당하는 세계를 그린 작품임을 주장하는데, 헨리 4세와 헨리 5세의 목표가 내부 갈등을 외부로 분출하기 위한 전쟁의 지속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65). 홀더니스의 설명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중세를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튜더 왕조가 건립된 이래 발생한 다양한 반란들을 고려했을 때 튜더 군주들의 불안감은 작품 내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⁶⁾ 결과적으로, 홀더니스의 분석은 중세를 넘어 셰익스피어가 살던 16세기 말의 영국에도 봉건 귀족들이 국왕의 지위에 가하는 위협이 문제가 되었음을 역설한다.

헨리 4세와 귀족들의 대립은 헨리 4세가 『리처드 2세』 (*Richard II*, 이하 *R2*)에서 리처드 2세(Richard II)의 왕위를 찬탈하기 이전부터 있어 온 국왕과 귀족들 간 충돌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이러한 대립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리처드 2세』의 1막 1장에서 리처드 2세가 볼링브록(Henry Bolingbroke)와 모브레이(Thomas Mowbray)의 대립을 중재하는 장면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볼링브록이 자신의 숙부인 글로스터 공작(Duke of Gloucester)을 살해한 죄목으로 모브레이를 고발하고 상대가 반박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는데, 이들은 “기사의 규약”(rites of knighthood)에 따라 결투를 벌여 각자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한다(*R2* 1.1.75-78, 80-81). 리처드 2세는 볼링브록과 모브레이의 기대와 달리 서로를 용서하고 타협할 것을 지시한다(1.1.156). 그는 귀족들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be rul’ d; 1.1.152)을 지시함으로써 “명령하기 위해”(to

6) 캠벨은 1569년에 일어났던 북부 귀족들의 반란이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 연작에 묘사된 퍼시 일가의 반란과 유사성을 지닌다고 파악한다(231). 맥앨런던(Tom McAlindon)은 1536년의 은총의 순례단(Pilgrimage of Grace)이 일으킨 반란, 1569년에 일어났던 북부 귀족들의 반란 및 1569년부터 1601년까지 지속된 아일랜드 지역의 반란 등 역사적 사실들을 검토함으로써,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가 반란에 대한 군주의 불안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28-31).

command; 1.1.196) 태어난 군주인 그의 권위에 이들이 복종하기를 요구한다. 이에 더하여 그는 1막 3장에서 양측의 결투를 중단하고 이들의 추방을 지시함으로써 귀족들의 규칙을 수용하지 않는다(1.3.140-43, 149-51). 셰익스피어는 리처드 2세가 귀족들에게 본인의 명령에 따를 것을 강조하는 대사를 삽입함으로써, 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국왕의 권위를 확립하고자 하는 군주의 모습을 제시한다. 귀족들은 리처드 2세의 중재를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국왕이 제안한 타협을 거부한다. 국왕은 불링브로크와 모브레이를 국외로 추방하고, 불링브로크의 아버지인 곤트의 존(John of Gaunt)이 사망하자 그의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불링브로크가 리처드 2세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계기를 마련한다. 불링브로크는 국왕에게 몰수당한 재산과 랭커스터 공작 신분을 되찾겠다는 명분으로 귀국하여 귀족들의 지지를 얻어 리처드 2세를 축출하는 데 성공한다(2.3.117-23). 그는 헨리 4세로서 왕위에 오르지만, 국내외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귀족들의 군사력을 무력을 통해 제압해야 한다. 귀족들이 본인들의 무력을 통해 얻는 명예를 국왕의 권위보다 우위에 두는 한, 헨리 4세의 위치 역시 리처드 2세의 상황과 같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헨리 4세는 귀족들에 맞서기 위해 16세기의 영국 궁정에서 성행했던 명예의 “도덕화”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명예를 새롭게 정의한다. 파비니에 따르면, 헨리 4세는 귀족들이 추구하는 명예가 중앙집권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할 때 칭송할 가치를 가진다고 파악하며, 명예를 국왕의 편에 서서 “불명예스러운” 적들과 싸우는 이가 얻을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한다(Parvini 197). 핫스퍼는 국왕을 수호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군에 맞서고 있기에 “명예로운 전리품” (an honourable spoil; *IH4* 1.1.73)을 확보하는 장수이자 “명예의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 (the theme of honour's

tongue; 1.1.80)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핫스퍼가 헨리 4세에게 모데이크(Mordake) 공 외에는 전투에서 획득한 포로를 이송하지 않겠다고 전하자(1.1.91-94), 국왕은 핫스퍼를 국가에 위협이 되는 이로 파악하고 “어린 퍼시의 오만함”(young Percy's pride; 1.1.91)을 경계하기 시작한다. 핫스퍼는 무사의 예법(the law of arms)에 따라 왕족을 제외한 포로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국왕의 지시가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거부한다(Humphreys 8). 웨스트모얼랜드는 핫스퍼의 숙부인 우스터 백작(Earl of Worcester)이 왕권에 맞서는 방향으로 핫스퍼를 교육하고 부추겨 그가 왕족을 제외한 모든 포로를 가지겠다고 통보하게 했음을 주장한다(1.1.95-98). 우스터 백작은 웨스트모얼랜드에 의해 “모든 면에서 악의적”(malevolent . . . in all aspects; 1.1.96)이고 “국왕의 존엄에 반하여”(against your[king's] dignity; 1.1.98) 사고하는 이로 정의되며, 돌발적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 핫스퍼의 행위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국왕이 귀족들을 경계할 구실을 제공한다.⁷⁾

1막 3장에서 벌어지는, 핫스퍼가 전투에서 사로잡은 포로 이송에 관한 국왕과 귀족들 간의 설전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봉건 귀족과 이를 제한하려는 국가 간의 갈등을 보여 준다. 헨리 4세는 귀족들이

7) 셰익스피어가 『헨리 4세』 연작을 작성할 때 참고한 원전의 저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홀린세드는 『연대기 3권』(*The Third Volume of Chronicles*)에서 포로 확보와 모티머(Edmund Mortimer)의 신변 문제로 인한 퍼시 가문과 국왕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다. 홀린세드는 퍼시 일족이 “그 [국왕]의 부와 풍족함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began . . . to envie his[king's] wealth and felicitie; 184)고 기록함으로써 이들이 국왕과 갈등을 빚는 배경에 재산 소유의 문제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들이 포로를 이송하라는 국왕의 지시에 반발하여 직접 국왕을 찾아가 불만을 토로한다는 점은 퍼시 가문이 국왕의 지시를 곧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한다는 것을 드러낸다(184). 셰익스피어는 해당 기록을 국왕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귀족들을 소환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귀족들의 요구에 대한 국왕의 불안감과 그에 따른 조치를 강조한다(1.1.99-103, Humphreys 9).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공을 세워 획득한 결과물을 국가에 귀속하려 한다. 반면에 귀족들은 본인들이 확보한 전리품들을 보유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군주의 지시에 저항한다. 헨리 4세는 군주의 권위가 귀족들의 요구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며, 귀족들의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들의 복종을 이끌어낼 것임을 선언한다. 그는 퍼시 가문의 구성원들에게 핫스퍼가 노획한 포로들을 넘길 것을 재촉하면서, 본인의 천성이 지나치게 부드러워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존경을 상실했기에 이들이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국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 파악한다 (1.3.4, 6-9). 왕가의 혈통을 타고난 귀족이므로 국왕 앞에서 항복해야 하는 모데이크를 제외하면, 국왕은 포로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핫스퍼가 나머지 포로들을 억류하는 행위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Humphreys 8, Holderness 70). 그럼에도 그는 포로를 넘기지 않는 귀족들을 “위험과 불복종” (danger and disobedience; 1.3.15)을 마음에 품은 이들로 판단하며, “앞으로 제 정신을 차려, 강대하고 두려움을 받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will from henceforth rather be myself, / Mighty and to be fear’ d; 1.3.5-6)라고 선언함으로써 이들의 행위에 제재를 가할 의지를 표명한다.

국왕의 본분을 다할 것임을 선언하며 귀족들을 압박하는 헨리 4세에 맞서, 귀족들은 핑계를 대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국왕이 포로를 넘겨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우스터 백작은 퍼시 가문의 지원이 없었다면 국왕의 왕권 획득이 불가능했을 것이기에, 그의 가문이 문책 받을 이유가 없음을 강조한다 (1.3.10-14). 핫스퍼는 전투가 끝난 후에 본인을 향해 포로를 넘길 것을 요구한 국왕 측 관료의 질문에 “고통과 짜증으로 인해” (out of my grief

and my impatience; 1.3.50) “건성으로” (neglectingly; 1.3.51) 혹은
 ” 간접적으로” (indirectly; 1.3.65) 답했으며, 자신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한다
 (1.3.50). 우스터와 핫스퍼의 반응은 공통적으로 공적을 세운 이가 그 결과
 물을 소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핫스퍼가 당
 시 본인의 모습을 “짜증”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묘사하는 것은 그가 획득
 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국왕 측을 조롱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다음 인용
 문에서 공을 세운 사람만이 명예를 획득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권리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맹세코, 창백한 달님의 얼굴까지 떠올라
 빛나는 명예를 따서 내려오거나
 측연선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깊은 바다 밑으로 돌진해 내려가
 물에 빠진 명예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는 건 쉽다고 봅니다.
 그녀[명예]를 구한 자가 그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는 한 말이죠.
 허나 그 영광을 어정쩡하게 공유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By heaven, methinks it were an easy leap,
 To pluck bright honour from the pale-faced moon,
 Or dive into the bottom of the deep,
 Where fathom-line could never touch the ground,
 And pluck up drowned honour by the locks;
 So he that doth redeem her [honour] thence might wear
 Without corrival, all her dignities:

But out upon this half-faced fellowship! (1.3.199-206)

헛스퍼는 달에서든 바다에서든, 직접 공을 세워 명예를 획득한 자만이 그 권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역설한다. 그가 주장하는 명예는 무공을 세운 귀족이 누리는 명성을 말한다. 그는 왕이 국가의 이익을 내세우며 자신의 포로를 “어정쩡하게 공유” 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사로서 획득한 명예를 보장받고자 한다. 국가가 본인의 포로 소유권에 가하는 간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헛스퍼의 발상은 재산에 대해 근대 초기의 개인 및 국가가 갖는 관점과 역행하는 것이다. 해터웨이(Michael Hattaway)에 따르면, 스스로를 군사 계급이라 자처하던 귀족들은 상업 행위뿐만 아니라 토지로부터 자산을 확보했는데, 이러한 재산 축적이 한 계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튜더 왕조 역시 토지를 소유한 계급의 폭력 행사를 막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귀족 계급은 위기를 맞게 된다(86). 해터웨이는 근대 초기가 국민국가(nation-state)의 시대였으며, 개인의 이익이 도시나 집단의 이익에 종속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 우세했다고 주장한다(86). 이를 토대로 볼 때, 퍼시 가문을 비롯한 귀족들의 반란은 근대 초기의 군주가 그들의 무력과 재산을 절대 군주의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에 대한 반발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귀족들은 그들의 명성과 재산을 보호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과거에 볼링브로크가 귀국하며 재산과 작위를 되찾을 권리를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왕을 압박한다.

공을 세워 획득한 전리품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가문의 위기로 인한 생명의 위협은 귀족들을 뭉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인척 관계인 모티머(Edmund Mortimer)에 대한 처우에 반발하여 국왕에게 반기를 드는 퍼시 가문이나, 형제인 스크룹 경(Lord Scroop)의 사망을 계기로

귀족 반란군에 합류한 요크 대주교(Archbishop of York)의 사례(1.3.264-65)에서 볼 수 있듯이, 귀족들에게는 친·인척간의 유대가 국가에 대한 충성에 우선하는 가치로 작용한다. 모티머의 보석 여부를 둘러싸고 국왕과 귀족들이 벌이는 신경전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친족 간의 유대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실제 역사에서 리처드 2세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된 모티머(Edmund Mortimer, Earl of March)와 글렌다워에게 납치되어 그의 딸과 결혼한 모티머는 별개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Humphreys 25, 28, 202), 셰익스피어가 두 인물의 정보를 합쳐 한 인물로 제시한 데는 헨리 4세의 정통성이 갖는 불안정한 성격과, 이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왕과 귀족들 간 갈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⁸⁾ 홀린세드는 헨리 4세가 모티머에게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게 하는 동기로 그가 리처드 2세에 의해 국왕 후계자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184-85).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는 글렌다워에게 억류되어 그의 딸과 결혼한 모티머를 “반역자”(a traitor; 1.3.85) 취급하며, 모티머의 보석금을 내기 위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1.3.84-85). 국왕은 보석금을 지불해 모티머를 궁정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반역을 사들이고, 공포와 계약하는”(buy treason, and indent with fears; 1.3.86)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 파악한다. 국왕의 입장에서 모티머는 이미 웨일즈 세력과 연합하여 자기편에 서기를 거부한 자이며, 그의 존재는 귀족들이 연합하여 자신의 지위에 위협을 가하

8) 셰익스피어가 모티머에 대한 배경들을 통합하여 갈등의 중심축에 놓음으로써 국왕의 정통성에 관련된 불안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귀족들의 명분을 지지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극의 정황을 살필 때 그렇게 단정하기는 힘들다. 해당 설정은 모티머가 글렌다워의 친족과 결혼함으로써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그에 대한 보석을 거부하는 국왕에게 합당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Bevington 12).

리라는 국왕의 불안감을 심화시킨다.

친족의 위기는 불안을 느낀 귀족들이 국왕에 대한 불신을 쌓는 계기가 된다. 핫스퍼는 모티머가 글렌다워와 격전을 벌였기에 그를 배신자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한다(1.3.94-97). 핫스퍼에 따르면, 모티머가 전투에서 입은 “치명적인 상처” (deadly wounds; 1.3.108)는 그가 “비천하고 부패한 책략” (bare and rotten policy; 1.3.107)과는 무관한 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핫스퍼는 모티머가 입은 상처가 외적과의 싸움에서 얻은 것이기에 군주에 대한 충성을 입증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국왕은 모티머의 공적을 부정하고(1.3.113) 그의 신변 보호를 공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핫스퍼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핫스퍼는 모티머가 리처드 2세에 의해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이기에, 국왕이 정통성에 관련된 불안감을 느껴 보석금 지급을 거부하고 그를 반역자로 취급한다는 결론을 내린다(1.3.153-57). 그는 모티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다짐(1.3.133)을 본인들의 빼앗긴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1.3.178-79)과 연결시킨다. 그는 자신들이 리처드 2세를 폐위하고 헨리 4세가 왕위에 오르도록 도운 것과, 같은 국왕에 의해 속아 넘어가고 버려지는 것이 과거로부터 미래에 걸쳐 “수치” (shame)로 남을 것임을 강조한다(1.3.168-77). 핫스퍼의 과장된 수사는 국가가 귀족들의 재산권에 가하는 간섭과, 친·인척에 대한 국왕의 보석 거부를 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귀족들로 하여금 명예 회복을 목표로 여러 세력을 규합하여 국왕에 반기를 들 것을 결의하게 한다.

귀족들은 반란의 명분으로 헨리 4세가 그간 쌓아 온 신뢰를 파기했음을 강조한다. 반란군 진영은 헨리 4세를 “달콤한 예의범절” (a candy deal of courtesy; 1.3.247)을 제공하며 인사를 건네는 “사악한 정치꾼” (vile

politician; 1.3.238)으로 묘사한다(1.3.249-50). 핫스퍼는 전투 직전에 국왕의 화평 제안을 전하러 온 블런트(Sir Walter Blunt)에게 헨리 4세가 귀국했을 때 맹세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본인들의 거병 이유로 제기한다. 당시 블링브로크는 랭커스터 공작 작위와 토지를 되찾고 국왕의 보호를 청하기 위해 영국에 돌아왔음을 맹세함으로써 귀족들의 지지를 얻었는데(4.3.60-65),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리처드 2세를 제거하여 국가를 장악하였기에 그는 본인이 맹세한 범위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4.3.83-84, 90-92). 우스터 백작 또한 헨리 4세와 대면하여 그가 과거에 왕권을 노리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으나(5.1.41-45), 곧 맹세를 잊어버리고 다른 이들의 환심을 사 국가를 통치할 전권을 손에 넣었다고 지적한다(5.1.56-58). 귀족들은 헨리 4세가 빼앗긴 재산과 작위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국왕의 지위마저 강탈했음을 비난함과 동시에, 중앙집권적 권력 집중을 추구하며 자기들을 압박하는 군주에 대한 불안과 경계심을 드러낸다. 반란군은 국왕 측과 대화할 때 “안전” (safety)이라는 표현을 자주 구사함으로써 왕을 향한 적대적 입장과 더불어 주도권 상실에 대한 불안을 드러낸다. 핫스퍼는 본인들의 병력을 “안전을 위한 군대” (this head of safety; 4.3.103)로 정의하고, 우스터 백작은 “우리가 먹이를 줘서 거대한 크기로 자란” (Grew by our feeding to so great a bulk; 5.1.62) 국왕을 피해 “안전을 위해” (for safety sake; 5.1.65) 군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한다. 핫스퍼 사후 『헨리 4세 2부』에서 요크 대주교 또한 잔존 반란군을 규합해 군사를 일으키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To hold our safety up; 2H4 4.2.35) 군사력을 동원한다고 밝힌다. 귀족들에게 안전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의 확보와 친인척 간의 유대가 국가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귀족들이 헨리 4세의 과거 맹세를 거론하는

까닭은 절대 왕권이 그들의 권한을 위협하는 상황을 저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반란군이 거병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본인들이 과거로부터 누리 온 봉건 귀족의 재산권과 친·인척 간 유대에 간섭하는 국가를 향한 반발이 자리 잡고 있다. 반란군에게 과거는 귀족의 위치에 걸맞은 특권을 누리던 중세 사회를 의미하면서도, 불링브로크가 리처드 2세의 왕위를 찬탈하던 순간 역시 포함한다. 이는 귀족들이 국왕의 자리를 무력으로 탈취할 수 있는 지위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 왕권은 귀족들이 과거에 누리던 무력을 통제하고 그들을 군사 및 행정 관료로 활용하고자 하지만, 국왕의 자리를 노리는 귀족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서론에서 밝혔다시피, 셰익스피어의 역사극들은 근대 초기의 귀족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 세력을 잃고 중앙의 궁정 질서로 편입되는 역사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셰익스피어는 『헨리 4세』 연작 속 귀족들의 반란을 16세기에 구성된 국가와 궁정 중심의 중앙집권적 질서에 대한 반발이라 정의하고 있다.

핫스퍼라는 역사적 인물이 극중에서 재현되는 방식은 이 작품에서 절대 왕권에 반발하는 귀족들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핫스퍼는 궁정 질서에 대한 혐오를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절대 왕권에 저항하고 과거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대표적 인물이다. 핫스퍼는 그가 전투 현장에서 만난 “깔끔하고 정돈되게 차려입은”(neat and trimly dress' d; *IH4* 1.3.32) 국왕 측 관료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그 궁정인을 꾸미는 데 능하고 쓸데 없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로 정의한다. 그 관료는 “모자 장사꾼 같이 향수를 뿌린”(perfumed like a milliner; 1.3.35) 채 “향수 상자”(pouncet-box; 1.3.37)를 자신의 코에 들이댔다가 떼기를 반복하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묘사된다. 그 관료가 시체를 이고 가는 군인들을 무시하고 예의 없는 이들로 부르는 모습(1.3.41-44)이나, 화약만 아니었으면 본인이 군인이 되었을 거라는 발언(1.3.62-63)에서 군인을 비하하는 어조를 감지한 핫스퍼는 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핫스퍼는 관료가 포로 이송을 요구했다는 사실(1.3.46-47)보다 “내용 없고 연결 안 되는 수다” (bald unjointed chat; 1.3.64)를 늘어놓는 궁정인의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궁정인을 희화화하고 그 특성을 비판한다.⁹⁾ 궁정인을 향한 핫스퍼의 혐오감은 그 궁정인이 모시는 왕권에 대한 반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핫스퍼는 동맹 관계인 글렌다워에게서도 궁정인의 기질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다. 글렌다워는 자신이 “잉글랜드 궁정” (the English court; 3.1.117)에서 교육받았음을 강조하며, 어릴 적부터 하프 음악에 맞춰 민요 작곡에 능했다는 점을 과시한다(3.2.118-20). 핫스퍼는 “박식하고, 용감하며, 불임성 있는” (well read . . . valiant . . . affable; 3.1.160-62) 궁정인인 글렌다워를 전장에서 본인을 성가시게 했던 관료와 유사한 모습으로 파악하는데, 핫스퍼가 보기에 글렌다워는 “지리멸렬한 내용들” (a deal of skimble-skamble stuff; 3.1.148)을 전달하는 수다쟁이에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이다. 핫스퍼는 글렌다워의 자랑에 대해 가두 시인

9) 별면은 핫스퍼가 관료의 “여성적인 건방짐” (effete hauteur; 159)에 부정적 시선을 보임으로써 궁정의 가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59). 맥얼린턴은 핫스퍼가 관료에게 보이는 혐오에서 그가 국가 중심의, 그리고 교양 있는 귀족의 이상에 자신을 맞추는 데 실패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58). 국왕 측 관료가 유달리 “까다로운 오만” (fastidious disdain)으로 군인들을 경멸하며 “꾸며진 세련됨” (affected refinement)을 보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궁정인의 유형으로 등장한다는 점은 사실이나, 이를 비난하는 핫스퍼 또한 군사적 명예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숭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궁정인이 비판하는 ‘무식하고 예의 없는’ 군인의 범주에 본인을 포함시킨다 (McAlindon 158-59).

중 한 명이 되느니 고양이가 되어 울겠거나, 바퀴가 굴대와 스쳐 빠걱대는 소리를 들겠다는 반응을 보이고(3.1.123-26), “젠체하는 시” (mincing poetry; 3.1.128)가 자신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밝힘으로써(3.1.127-28) 시와 음악 등 궁정 생활에 필요한 자질들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낸다. 글렌다워에게 “진실을 말하고 악마에게 수치를 안기겠다” (tell truth, and shame the devil; 3.1.55)는 핫스퍼의 발언은 그가 궁정의 사교 활동에 필요한 자질들을 일종의 허풍이자 속임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핫스퍼의 언행은 반란 귀족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데, 이는 귀족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핫스퍼의 이상과 현실적 조건들을 경시하는 그의 한계를 부각한다. 핫스퍼의 친족들을 포함한 귀족들은 핫스퍼의 무사적 기질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를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인물로 취급한다. 반란군 진영의 귀족들은 핫스퍼의 “고집불통인” (wilful-blame; 3.1.171) 태도나 성급한 기질을 지적하며 그의 사고 방식에 우려를 표시한다.¹⁰⁾ 셰익스피어는 국왕의 궁정에 맞서는 반란군을 극화하면서도, 핫스퍼와 귀족들의 충돌을 보여 줌으로써 전장에서 얻을 공적을 강조하는 핫스퍼의 발상이 사태에 대한 냉정한 판단에 기반을 둔 사고가 아님을

10) 우스터 백작은 핫스퍼의 기질이 “위대함, 용기, 그리고 활력” (greatness, courage, blood; 3.1.175)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거친 분노, 예의범절의 결여, 자제력의 부족, 오만, 건방짐, 아집 및 경멸” (harsh rage, / Defect of manners, want of government, / Pride, haughtiness, opinion and disdain; 3.1.177-79)을 드러내어 인심을 잃게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3.1.180-81). 험프리스(H. R. Humphreys)는 우스터의 대사가 근대 초기의 사상가의 견해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95-96). 일레로 튜더 시대의 사상가인 엘리엇(Sir Thomas Elyot)은 통치자의 자질을 거론하며, 용기(courage)로부터 완고함(obstinacy)이 형성됨을 지적하며, 고귀한 용기와 자신의 재주만을 신뢰하는 완고함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197). 인심을 잃는다는 것은 정교한 처세술을 필요로 하는 궁정 생활에 맞지 않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 행위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강조한다.¹¹⁾ 일례로, 우스터 백작은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 정치에 근거한 판단에 능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에 반해 핫스퍼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반란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음을 표방하면서도(4.3.103), 정작 본인과 주변인들의 안전보다는 전장에서 공을 세워 획득하는 명예를 중시하는 발언을 한다. 그 사례로, 2막 3장에서 반란의 위험을 경계하는 익명의 편지(2.3.5-6)를 받아 읽은 핫스퍼가 편지의 저자를 경멸하며 “위험이라는 가시덤불로부터” (out of this nettle, danger; 2.3.9-10) “안전이라는 꽃” (this flower, safety” ; 2.3.10)을 따 낼 것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위의 장면은 핫스퍼는 무력을 통한 명예의 증명과 배치되는, 다시 말해 실리를 따지는 주장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는 무용의 증명만이 본인의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인 양 행동하기에, 봉건시대의 귀족이 가졌던 개인주의적 성향이 ‘무용’이라는 측면에서 부각된 인물이다.

극중에서 무용의 증명에 집착하는 핫스퍼의 면모가 부각되는 점은 사실이지만, 셰익스피어는 핫스퍼의 성급한 기질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핫스퍼를 포함한 여러 귀족들이 통합되지 않은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상황 역시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핫스퍼가 직면하는 정치적 선택의 상당 부분은 우스터 백

11) 이를테면, 카스틸리오네는 『궁정인론』에서 군사적 가치만을 귀족의 미덕의 전부로 파악하는 행위가 이상적인 궁정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는 말투, 표정 등으로 본인의 무용이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는 행위를 궁정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경계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그 [궁정인]가 사나운 모습을 너무나 과시하여 그가 이야기하며 영원히 으스스대고, 자신의 갑옷과 맺어진 관계임을 공표하고, 엄한 눈빛으로 노려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we do not wish him[Courtier] to make a show of being so fierce that he is forever swaggering in his speech, declaring that he has wedded his cuirass, and glowering with such dour looks . . . ; Castiglione 25).

작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1막 1장의 헨리 4세와 웨스트모어랜드 백작의 대화를 다시 살펴보면, 핫스퍼의 포로 이송 거부는 우스터 백작의 “가르침”(teaching; 1.1.95)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1.1.95-98). 1막 3장에서 각지의 국왕 반대 세력을 결집하는 과정 역시 우스터 백작의 계산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1.3.255-70). 그는 자신이 “계획한”(fashion; 1.3.291) 대로 각자가 연락한 반란군 병력의 집결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며, 반란군 결성의 배후에 본인의 영향력이 작용했음을 드러낸다. 결정적으로 우스터 백작은 핫스퍼에게 헨리 4세가 화평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핫스퍼가 의심을 갖지 않고 국왕과의 전면전에 나서도록 유도한다(5.2.29-30). 그러나 우스터 백작의 계획들은 귀족들의 분열된 선택으로 인해 결국 허사가 된다.

반란군 구성원들의 성격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은 각자가 개인적 복수를 의도하며 행동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온스타인(David Ornstein)은 핫스퍼의 성급함과 우스터의 주도면밀함이 개인적 동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고 주장한다(128-31). 반란군은 결국 각자의 의도를 하나의 목표로 통합하지 못하고 분열됨으로써 국왕 측에 주도권을 빼앗긴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헨리 4세의 화평 제안에 대한 우스터 백작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왕은 블런트 경(Sir Walter Blunt)을 사절로 보내 반란군의 요구를 수용하고 반란 가담자들을 무조건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반란군과의 회담에 참가해 반역에 가담했던 이들을 포함한 모두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는 언급과 함께 화평을 제안한다(4.3.48-51, 5.1.104-08). 전투를 앞두고 귀족들 사이에 만연한 불안감은 이들로 하여금 화평 조약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다. 반란군은

노섬벌랜드 백작과 글렌다워의 지원¹²⁾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자신들의 명분이 흔들리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4.1.125-26). 우스터 백작은 지도자의 부재가 반란군에게 치명적인 이유로 그의 부재 사유를 모르는 이들이 “지혜, 충성심, 그리고 우리[반란군]의 거사에 대한 순전한 혐오” (wisdom, loyalty, and mere dislike / Of our[rebels’] proceedings; 4.1.64)로 인해 지도자가 사라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반란군이 제시하는 명분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5.1.62-68). 이에 더하여 귀족들은 국왕군에 비해 본인들이 수적 열세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4.3.28). 귀족들이 병력의 열세를 호소하는 장면은 홀린세드 등이 저술한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는데, 셰익스피어는 출전 여부를 놓고 귀족들이 갑론을박하는 장면(4.3.1-6)을 극화함으로써 거물 귀족들의 불참이 반란군에게 명분과 현실적 전력 양쪽을 약화시킴을 드러낸다.

귀족들에게 불리한 전황에서, 우스터 백작의 고의적인 왜곡은 핫스퍼가 국왕의 의도를 더 이상 고려할 필요 없이 전면전을 결심하도록 이끈다. 우스터 백작은 국왕의 화평 제안을 “관대하고 친절한” (liberal and kind; 5.2.2) 것이라 칭하면서도, 핫스퍼에게 이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셰익스피어는 우스터에 백작에 관한 홀린세드의 기록을 참조하면서도, 극중에 우스터 백작의 고민을 삽입함으로써 그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가능한

12) 홀린세드는 노섬벌랜드 백작의 병환이 슈루즈버리 전투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웨일즈 군대는, 글렌다워의 참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퍼시 일가의 편을 들어 싸웠다고 기록한다(186, 190). 셰익스피어는 노섬벌랜드 백작이 전투 발생 시기에 병에 걸리는 상황을 설정하고, 글렌다워의 부재를 언급함으로써 반란군의 와해를 촉진하고 핫스퍼의 고립을 부각하고자 한다(Humphreys 121, 126). 전투의 시작과 함께 보고되는 이들의 부재는 홀린세드의 기록과 달리 반란군에게 “마지막 순간의 재앙” (a last-minute catastrophe; Bevington 15)으로 작용하여 반란군을 열세로 몰고 간다.

원인 중 하나를 제공한다.¹³⁾ 우스터 백작의 예상에 따르면, 핫스퍼가 저지른 반역 행위들은 “무모한” (hare-brain’ d; 5.2.19) 성격과 젊은 혈기로 인한 것이라 인정되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를 교육한 노섬벌랜드 백작과 자신은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5.2.16-23). 설령 국왕이 약속을 지켜 본인들이 살아남는다 한들, 우스터 백작은 귀족들이 저질렀던 반역 행위는 “아무리 길들여지더라도” (never so tame; 5.2.10) 간교한 여우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기에, 본인들에게 “의심” (supposition; 5.2.8)의 눈초리가 따르고 자신들의 모습이 주변의 해석에 의해 “왜곡될” (misquote; 5.2.13) 것이라 예상한다. 국왕이 반역죄를 저지른 이들을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는 다른 구실을 붙여 이들을 처벌할 기회를 노리고 있기에(5.2.6-7), 귀족들은 언제나 의심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한다. 우스터는 “의심” 이나 “왜곡” 과 같은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귀족들이 국왕의 화평을 받아들였을 때 이전과 같은 권리를 누리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기에 우스터 백작에게 가능한 최선의 선택은 핫스퍼를 부추겨 국왕과의 전면전을 각오하는 일이다. 그 결과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핫스퍼는 할 왕자에 의해 죽음을 맞음으로써 봉건 귀족의 최후를 보여 주는 대표적 예시가 된다. 핫스퍼는 궁정인을 혐오하며 궁정 질서에 저항하지만, 전투에서 패배하며 무용의 증명을 삶의 목표로 여기는 귀족이 정치적 영향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래킨의 분석에 따르면, 핫스퍼의 최후에 대한 셰익스피

13) 우스터 백작에 관련된 홀린세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우스터 백작은 돌아오자 국왕이 말한 것과 반대로 진술함으로써 그의 조카가 국왕을 향해 노여움을 품도록 했다” (the earle of Worcester (upon his returne to his nephue) made relation cleane contrarie to that the king had said, in such sort that he set his nephues hart more in displeasure towards the king; 190).

어의 묘사는 실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득세하는 새로운 세계에서 핫스퍼로 대표되는 봉건 귀족의 이상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136).

반란군 귀족들이 보이는 가치관과는 대조적으로, 국왕 측의 귀족들은 그들의 무력을 군주를 수호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절대 왕정에 의해 관료로서 보호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국왕의 측근 귀족들이 국왕과 같은 옷을 걸치고 반란군을 대적하다 목숨을 잃는 장면(5.3.1-13)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장면에서 셰익스피어는 군주를 위해 미끼를 자처하는 이들에 대한 소재를 홀린세드로부터 빌려 오며, 군주의 편에 서서 그의 권위를 보호하는 귀족 관료들을 제시한다. 전장에서 더글러스가 왕이라 생각하고 죽인 이들은 모두 왕의 옷을 입은 귀족들로 밝혀지며, 더글러스는 진짜 왕을 만날 때까지 왕의 외투를 입은 이들을 모두 죽이고자 한다(5.3.26-27). 그는 그 중 한 명 - 그는 공교롭게도 국왕이다 - 을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하지만, 할 왕자의 개입으로 인해 결국 국왕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5.4.34-42). 할 왕자는 국왕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용감한 셸리, 스태포드와 블런트의 영혼” (the spirits / Of valiant Shirley, Stafford, Blunt; 5.4.39-40)을 추앙하며,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¹⁴⁾ 셰익스피어는 전장에서 국왕을 가장하고 미끼로 기능하는 기사들

14) 캐스틴(David Scott Kastan)은 왕이 그를 재현하는 이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5.4.26-27, 34)는 점에서, 해당 장면을 왕의 자기보전을 위한 전략 차원을 넘어 왕권 자체가 개인이 연기하는 위장, 역할, 행위에 불과함을 폭로하는 장면으로 읽는다(“The King” 253, “Proud Majesty” 465). 그는 권력이 재현의 효과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동시에 권력이 연극 무대에서 재현됨으로써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국왕처럼 행동하는 행위가 국왕의 권위를 보장하지 못하며, 국왕은 단지 권위를 나타내는 언어적, 시각적 상징들을 제 것인 양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The King” 253). 그러나 캐스틴의 지적대로 더글러스가 왕의 옷을 입은 가신들과 실제 왕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국왕의 권위가 약화된다는 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극중 상황을 토대로 판단할 때, 귀족

그러나 당신들 역적들은 반역과 당신들 같은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맞볼 것이니 기대하시오.

Mowb. Is this proceeding just and honourable?

West. Is your assembly so?

Arch. Will you thus break your faith?

Lanc. I pawn'd thee none.

I promised you redress of these same grievances

Whereof you did complain; which, by mine honour,

I will perform with a most Christian care.

But for you, rebels, look to taste the due

Meet for rebellion and such acts as yours. (4.2.110-17)

위의 인용구에서 반란군 귀족들은 존 왕자의 조치가 합의된 신뢰를 파기한
기만적 행위이며,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지적한다. 하지만 존 왕자
는 반란군의 행위 또한 군주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기에 국가의 입장에
서 이들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존 왕자는 귀족들의 비판
에 직면하자, 고충의 해소를 약속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면에 관한 맹세 자
체를 부인함으로써, 그리고 국가의 권위를 내세워 체포된 이들을 반역죄로
처형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본인의 책임 소재를 제거한다(4.2.123-24). 이
상황에서 반란군은 사후 조치 없이 병력을 해산하여 스스로를 무방비 상
태로 만든다. 반란군의 병력 해산은 국왕이 반란 귀족 세력을 손쉽게 처
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의 결과이며, 결국 귀족들이 패배하는 원인
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애초에 상대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책략의 일환으로 조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존 왕자의 전략이 갖는 정당성
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가 군대를 해산하기 전에 양측의 군대가

함께 행진할 것을 제안한 점이나, 자신의 병력이 명령을 직접 전달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들이 “의무” (duties; 4.2.101)를 잘 파악하고 있음에 만족한다는 점은 화평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책략의 일환임을 보여 준다(4.2.93-95, 99-100). 대주교가 이끄는 반란군은 스스로의 무장을 해제함으로써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국가에 의해 반역자로 처단되면서, 퍼시 가문이 그러했듯 잉글랜드 내에서 주도권을 잃는다.

세익스피어는 귀족 반란군이 국왕군의 책략 앞에 무력화되는 과정을 극화하면서 절대 군주가 불만 세력을 제거하고 중앙집권적 권위를 확립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존 왕자는 과거에 국왕의 의도가 오해되고 일부 추종자들이 국왕의 취지와 권위에 왜곡을 가했음을 “혈통의 명예를 걸고” (by the honour of my blood; 4.2.55) 시인하며, 대주교에게 귀족들의 고충을 배상할 것임을 약속한다(4.2.56-60). 그러나 반란 귀족들이 체포되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존 왕자의 선언은 반란군의 무장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였음이 드러난다. 이는 존 왕자가 사실상 본인이 시정할 것을 약속했던 왜곡 행위를 답습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주교가 밝히는 과거 경험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준다. 대주교는 과거에 “우리의 모든 고충을 요약한 문서” (the summary of all our griefs; 4.1.73)를 국왕 앞에 보이고자 했으나 자신들에게 해를 입혔던 자들에 의해 알현을 거절당했으며, 본인의 요구가 경멸과 함께 궁정으로부터 떠밀렸음을 주장한다(4.1.75-79, 4.2.35-37). 대주교는 본인이 궁정 내 적대 세력에 의해 핍박받았음을 주장하는 반면에, 웨스트모어랜드는 대주교의 요구를 “계획된 반역” (forg’ d rebellion; 4.1.92)과 “폭동이라는 쓰라린 날” (commotion’ s bitter edge; 4.1.93)을

준비하는 행위로 보고, 대주교가 악의에 의해 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반역 행위를 했기에 궁정에서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한다(4.1.89-93). 이는 대주교가 이미 반역의 가능성을 지닌 자로 낙인찍혀 있었음을 의미하며,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을 반역자로 몰아 색출하는 작업이 여전히 궁정 내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헨리 4세』 연작이 묘사하는 반란군 지도 세력의 와해는 귀족들이 각자의 공적과 안전을 강조하며 수하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으며, 이들로부터 통합된 목표를 이끌어 내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하지던은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대다수 병졸들의 입장에서는 귀족들이 공훈, 명성, 기사들의 결투, 기사 로맨스의 관습으로 정의하는 명예가 감정 과잉에 지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334). 『헨리 4세 2부』에서 모튼(Morton)은 노섬벌랜드에게 핫스퍼의 사망을 보고하며, 그 휘하의 병졸들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촉보다 더 빠르게 전장으로부터 도망쳤음을 알린다(2H4 1.1.121-25). 그는 핫스퍼의 기개가 “그의 막사에 있던 가장 둔한 농군에게도 열정을 부여했”(lent a fire / Even to the dullest peasant in his[Hotspur’s] camp; 1.1.112-13)지만, 그의 사망이 “부대에서 가장 단련된 용기를 지닌 이로부터 열정과 열기를 거두어 가 버렸”(took fire and heat away / From the best-temper’d courage in his troops; 1.1.114-15)다고 보고한다. 핫스퍼의 사망과 이어지는 반란군의 와해는 이들의 결속이 단일한 지도자의 통솔력에 의존해 왔으며, 그 지도자가 무너짐과 함께 반란군의 구성원들이 다시 모일 의지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병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목표로”(aiming at their safety; 1.1.124) 달아남으로써, 귀족들이 내세우던 명분과 같은 이유로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진다. 대주교 휘하의 군사들 역시 화평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마자, 퇴각 전에 행진을 지시하기도 전에 “고삐 풀린 어린 황소들처럼” (Like youthful steers unyok ‘d; 4.2.103) 쏘살같이 각자의 가정과 노름 장소로 달아난다(4.2.103-05). 반란군 병졸들의 이러한 반응은 이들이 각자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귀족들의 통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곧 귀족들과 휘하 병졸들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으며, 병졸들이 더 이상 귀족들이 내세우는 명분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퍼시 가문과 요크 대주교 세력의 제압을 기점으로 국왕 측이 대부분의 반란군을 제압하고 국가가 안정을 되찾는 듯 보이나, 셰익스피어는 대주교를 비롯한 여러 귀족들의 대사와 헨리 4세의 근심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에 불만을 갖는 세력이 완전히 척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관객들에게 일깨운다. 대주교는 “그[국왕]의 적과 친구의 뿌리는 얽혀 있” (His[King]’ s] foes are so enrooted with his friends; 4.1.207)기 때문에 국왕이 “이 나라를 살살이 청소할 수 없다” (cannot so precisely weed this land; 4.1.205)고 주장한다. 귀족들의 지지를 얻어 왕권을 획득했으나 같은 귀족들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헨리 4세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주교가 지칭하는 뿌리가 귀족들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대주교의 발언은 헨리 4세가 자신의 지지기반이면서, 동시에 본인들의 권리를 위해 언제든지 국왕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귀족들을 온전히 억누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헤이스팅스 경은 잉글랜드에 후세가 이어지는 한 “해악의 계승자” (success of mischief; 4.2.47)들이 나타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4.2.47-49). 대주교나 헤이스팅스 경의 예측들은 핫스퍼를 포함한 반란군의 대부분이 척결된 후에도 귀족들을 포함한 불만 세력에 의해 국가의 안정성이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설령 불만 세력을 척결하는 과정이 반복될지라도, 이 과정은 절대 왕권의 권력을 공고

히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코언(Walter Cohen)의 지적과 같이, 『헨리 4세』 연작은 봉건주의가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배 계급 내부에서 귀족과 국왕, 봉건주의와 절대주의 간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헨리 4세가 반란군을 소탕한 뒤 깨닫는 것은 군사력을 이용해 차지한 왕권이 여전히 정통성 시비에 휘말려 있으며, 귀족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병상에서 아들에게 조언을 남기며, 귀족들의 지원을 얻어 리처드 2세를 무력화시키고 탈취한 왕권을 “부정하게 구부러진 방법” (indirect crook'd ways; 4.5.184)을 통해 “사나운 손으로 갈취한 명예” (an honour snatch'd with boisterous hand; 4.5.191)라 칭한다. 그는 자신이 국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귀족 세력의 위협에 맞서 “골치아픈” (troublesome; 4.5.186) 나날들을 보냈음을 고백한다. 봉건 귀족들은 재산과 친족 간의 유대를 지키고자 국왕을 정점으로 한 궁정 질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다. 퍼시 가문과 대주교를 포함한 귀족들은 전투에서 패배하며 궁정의 우세를 증명하고 절대 왕권의 권위에 힘을 싣지만, 헨리 4세는 이것이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함을 통감한다. 이들은 안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국왕에게 칼을 겨눌 수 있으며, 실제로 유혈 사태를 일으켰기에 국왕은 이들의 도움을 얻은 것을 평생 후회한다(4.5.192-95). 헨리 4세가 원래 되찾고자 했던 랭커스터 공의 작위 이상의 권력을 손에 넣은 것은 귀족들의 “가혹한 공모”(fell working; 4.5.206)가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왕은 이들의 권력에 의지한 이상 같은 힘에 의해 “다시 축출될 것이라는 공포”(a fear / To be again displaced; 4.5.207-08)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헨리 4세는 재위 내내 귀족들과 대립하면서 이들을 절대 군주의 영향력 아래 두고 국가 체제를

확립해 왕권, 나아가 사회의 안정을 이루고자 하지만 불만 세력을 완전히 억누르는 데 실패하며, 아들인 할 왕자로 하여금 그 역할을 잇게 한다. 논문의 3장에서는 할 왕자가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 절대 왕권을 획득하는 양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

3. 탕자의 귀환: 할 왕자의 개심과 군주의 권위

셰익스피어는 『헨리 4세 1, 2부』에서 방탕한 생활로 인해 비난받던 할 왕자가 통치술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여 중앙집권적 권력을 손에 쥔 군주로 성장함을 보여 준다. 이 극에서 주목할 점은 할 왕자의 방탕한 생활과 개심 과정이 절대 군주의 권위 확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할 왕자는 방탕한 무리들과 어울리던 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무력의 우위를 과시하고 법의 권위를 인정하는 등 통치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경험을 활용한다. 그가 부친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때까지의 행보는 불만 세력들을 통제하고 구성원들의 단결을 이끌어내어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앙집권적 군주가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 할 왕자는 하층민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자신의 방탕한 과거를 활용하는 등 군주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 『헨리 4세』 연작에서 나타나는 할 왕자의 행적은 그가 방탕한 과거마저도 통치에 활용할 수 있는 절대 군주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할 왕자가 군주가 되는 과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그의 방탕한 생활에 대한 긍정, 특히 헨리 4세의 반응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는데, 왕자의 행실에 대한 부친의 걱정은 그가 군주로서 보유한, 그리고 차후 그의 아들이 갖게 될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헨리 4세는 귀족들이 왕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할 왕자의 일거수일투족이 통치자의 자질에 부합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며, 그의 아들이 군주답게 처신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의 위기와 같은 의미로 파악한다. 국왕은 장차 군주가 될 이가 방탕한 무리들과 어울려 유흥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질문하며

(*IH4* 3.2.12-14), 그러한 행위들이 군주에게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국가에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캐스틴(David Scott Kastan)은 『헨리 4세』 연작이 “권력의 생산” (the production of power)에 대한 극이며, 극중의 헨리 4세가 그의 권위를 견고히 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파악한다(“The King” 241). 국왕은 할 왕자 개인의 상태가 아니라 “국가의 정신” (the soul of the state)으로서의 할 왕자에 대해 걱정하고 있기에, 왕자의 방종한 생활을 도덕적 타락이라기보다 국왕의 권위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으로 여긴다(“The King” 249).

셰익스피어는 『리처드 2세』의 후반부에 헨리 4세가 자신의 “방탕한 아들” (unthrifty son; *R2* 5.3.1)에 대해 고민을 토로하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귀족들의 반란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할 왕자의 행실에 대한 고민이 국가의 위기와 연관되어 국왕을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왕은 술집과 사창가를 주 무대로 삼는 할 왕자의 생활상(5.3.5, 16)을 사회에 해를 끼치는 “역병” (plague; 5.3.3)에 비유하며, 왕자의 행실이 국가 전반을 뒤흔드는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할 왕자가 3개월간 궁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5.3.2), 길가에서 경비병들을 폭행하고 행인들에게 강도짓을 저지르는 “행실 나쁜 패거리” (unstrained loose companions; 5.3.7)와 어울려 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국왕에게까지 퍼져, 국왕은 왕자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알아내고자 한다(5.3.4-9). 해당 장면에서 국왕의 근심은 왕자의 “어리고, 제멋대로이고, 방종한”(young, wanton, and effeminate; 5.3.10) 기질에 초점을 맞추는 듯하지만, 국왕은 그 기질로 인해 왕자가 방탕한 이들과 교제하고 군주에게 걸맞지 않은 행동을 습득한다고 봄으로써 왕자의 자질 문제를 국가의 위

기로 확대한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4세 1부』에서 국왕이 할 왕자와 핫스퍼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그가 왕자의 행실에 대한 불만을 불안정한 왕권으로 인한 불안감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포착한다. 작중의 헨리 4세가 스코틀랜드의 군대를 격퇴하여 칭송을 얻는 핫스퍼와 방탕한 삶을 사는 아들을 비교하며, 요정이 두 사람을 요람 째로 바꾸어서로의 신분이 변경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1H4 1.1.83-89)은 전작 『리처드 2세』 이후 아들의 방종한 생활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국왕이 핫스퍼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할 왕자의 역량을 한탄하는 장면은 홀린셰드의 『연대기 3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역사상 실존했던 핫스퍼의 연령은 할 왕자보다 20년 이상 높으며, 할 왕자와 핫스퍼는 전투 현장에서 마주치지 않는다.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참조한 사료 중에서도 대니얼(Samuel Daniel)의 『랭커스터와 요크라는 두 가문 간의 내전에 대한 첫 네 권』(*The First Fowre Bookes of the Civile Wars Between the Two Houses of Lancaster and Yorke*)과 같이 핫스퍼의 나이를 줄여 양측을 동년배로 설정한 사례가 발견된다(Daniel 97.1, Humphreys xxviii). 셰익스피어는 대니얼의 선례를 따라 핫스퍼와 할 왕자를 동년배로 설정함으로써(Humphreys 8) 양측이 무력을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할 왕자가 무력에서 우위를 점함으로써 군주의 자격을 증명하는 모습을 부각한다.

국왕은 왕위를 찬탈하던 당시의 본인과 핫스퍼를 동일시하고(3.2.94-96), 전 세계에 걸쳐 핫스퍼에게 주어진 “불멸의 명예”(never-dying honour; 3.2.106)를 군주의 자격으로 파악함으로써 우세한 무력을 군주의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

다. 핫스퍼가 국가에 “더욱 상당한 이익” (more worthy interest; 3.2.98)을 가져다줌을 국왕이 주장하는 근거는 핫스퍼가 저돌적으로 전장을 누비고 여러 장수들을 격퇴하며 증명한 무공과, 병졸들이 그에게 부여하는 일류 군인이라는 칭호이다(3.2.101-11). 헨리 4세가 핫스퍼의 무용을 칭송하는 까닭은 그가 과거에 군사력을 활용해 군주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증명했듯, 무력의 우위를 군주의 정통성을 받쳐 주는 가치 중 하나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작중 헨리 4세의 고민에서 무력의 활용은 군주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자, 왕위 계승의 중요한 자격 중 하나이다. 군주의 자질을 논하는 조언서의 대표적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가 전쟁술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군주는 전쟁, 그 방법 및 수행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에도 목표나 관심을 가지거나, 전념해서는 안 된다. 이는 통치하는 자에게만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A ruler, then, should have no other objective and no other concern, nor occupy himself with anything else except war and its methods and practices, for this pertains only to those who rule. (51-52)

이어 저자는 군주가 군사 문제에 관심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군사 훈련과 역사적 문헌 읽기를 조화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52-53). 마키아벨리의 사상과 저술은 그의 조국인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각지의 유럽 국가에 영향을 끼쳤으며, 영국에서도 통치자 계급을 주 독자로 삼은 유사 지침서들이 발간되었다. 16세기 영국에서 통치자 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당시, 무예 훈련과 교육을 통한 인

성 함양은, 폴니츠(Aysha Pollnitz)가 일종의 “내키지 않는 동료”(reluctant bedfellow; 124)라 표현하듯, 서로 조화되지 않으면서도 공존하는 관계에 있었다. 하지던은 엘리엇(Sir Thomas Elyot)이나 애스컴(Roger Ascham)과 같은 튜더 시대의 사회 비평가들이 당대 귀족들의 자녀 교육에서 군사 훈련만이 강조되던 풍조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극중의 헨리 4세와 같이 통치자가 될 이의 방종한 행실을 국가의 미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치적 문제로 파악했으며, 교육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경건함과 충성심을 기르고 제멋대로인 기질을 제어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Hodgdon 278). 하지만, 이 사상가들은 통치자의 자제들이 무예를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엘리엇은 『통치자라 이름 붙여진 책』(*The Book Named the Governor*)에서 통치자를 교육하는 데 중요한 가치로 고전 교육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쟁 상황이나 궁정 생활을 대비한 무예 훈련, 사냥, 매사냥, 춤을 통치자가 배워야 할 활동으로 제시한다(59-69). 엘리엇이 제시한 신체 활동은 학문을 익히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쇠약을 방지하기 위한 심신 단련의 성격이 강하지만, 통치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자질을 기르는 것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애스컴 역시 『교육자』(*The Schoolmaster*)에서 통치자의 자제들에게 학문에 정진함과 더불어 궁정 유희들을 배우고 전쟁 상황을 대비해 무예를 연마할 것을 권고한다(289). 요컨대, 튜더 시대 비평가들의 논의는 상류층 자제들이 무예, 학문 등 여러 영역을 조화롭게 함양함으로써 통치자에게 필요한 자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할 왕자가 부친 앞에서 핫스퍼를 처단할 것을 맹세

하는 장면은 그가 부친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주의 자질을 획득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헨리 4세와 할 왕자가 화해하는 장면은 홀린셰드의 『연대기 3권』에서도 발견되기에 셰익스피어가 홀린셰드의 기록을 참고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할 왕자의 행동 동기나 사건이 발생한 시기의 측면에서 두 기록은 큰 차이를 보인다. 홀린셰드는 슈루즈버리 전투가 일어난 연도인 1403년으로부터 8년 후인 1411년에 할 왕자와 헨리 4세가 대면했다고 기록하는데, 기록상의 왕자는 본인에 대한 모함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여 국왕을 찾아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국왕과 화해한다. 홀린셰드의 기록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왕자와 국왕 간 정치적 갈등인데, 왕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국왕이 왕자와 그의 추종자들을 추밀원에서 추방하거나, 국왕이 모함을 듣고 왕자의 반역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는 식으로 양자 간 정치적 갈등을 제시하는 서술이 발견되기 때문이다(Holinshed 193-95). 이와 달리, 셰익스피어는 왕자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추밀원의 자리를 잃었음을 국왕이 지적하는 장면(3.2.32-33)을 삽입함으로써 왕자의 방탕한 생활을 왕자가 받는 각종 불이익의 중심에 위치시킨다.¹⁵⁾ 극중에서 왕자는 본인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이야기들을 국왕에게 퍼뜨린 이들을 언급하지만, 자신의 행실과 관련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1H4 3.2.23-26). 그는 방탕한 행위들을 철없던 시절에 벌인 착오로 정의하고, 앞으로 “위치에 걸맞는 행동을 하겠다” (shall . . . Be more myself; 3.2.92-93)고 맹세한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할 왕자는 방탕한 생활을

15) 『헨리 4세 1, 2부』의 편집자들은 왕자가 추밀원에서 자리를 잃은 사건이 홀린셰드, 엘리엇, 작자 미상의 『헨리 5세의 위대한 승리들』(*The Famous Victories of Henry The Fifth*, 이하 *FV*) 등 여러 기록에 전해지는 사건인 왕자와 수석 판사의 갈등 및 왕자의 투옥과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본다(Humphreys 102, Bevington 223).

멀리하고 국가의 안위를 우선순위에 두는 예비 통치자의 모습을 부친 앞에 보이게 한다.

셰익스피어가 국왕과 왕자의 대면을 반란군과의 전투 직전에 배치하는 까닭은 왕자가 군사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군주의 자격을 증명하는 과정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셰익스피어는 사건 순서의 수정을 통해 『헨리 4세 1부』가 홀린셰드의 기록과는 달리 부자 간 화해가 반란군을 정벌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반란군 우두머리의 목을 뱀으로써 자신이 국왕의 아들임을 밝히려는 할 왕자의 다짐은 본인이 군주의 자질을 갖춘 후계자임을 증명하겠다는 의미가 된다(3.2.132-34). 왕자는 전장에서 무공을 세워 본인의 평판을 회복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그의 방탕한 행실을 국가의 위기와 연관 지어 파악하는 헨리 왕의 고민에 답한다. 왕자는 “칭송받는 기사인 늠름한 핫스퍼와 생 각지도 못한 해리”(This gallant Hotspur, this *all-praised* knight, / And . . . *unthought-of* Harry; 3.2.140-41, emphasis added)의 대결 구도를 조성함으로써 국왕의 고민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하며, 이는 귀족들의 반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왕에 의해 즉각적으로 수용된다. 왕자는 칭송받는 전장에서 흘러 얼룩진 피가 자신의 얼굴에서 씻겨 나갈 때, 그간 그가 받아 온 굴욕 또한 씻겨 나갈 것이라 주장하는데(3.2.135-37), 이는 전장에서 공적을 세움과 함께 본인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왕자는 핫스퍼를 격퇴함으로써 핫스퍼가 쌓아 온 명예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며, 그 순간을 본인의 평판을 회복하는 과정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고 있다. 핫스퍼와의 대결을 앞두고 왕자는 본인이 얻은 치욕이 배가되기를 바라며, 핫스퍼가 쌓아 온 영광스러운 행위가 그 치욕과 교환될 것이

라 주장한다(3.2.142-46). 이 대목에서 왕자는 그간 받아 온 모욕을 진심으로 수치스럽게 여긴다기보다는 나중을 위해 이를 활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국왕과의 대화 과정에서 할 왕자가 모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그의 행실에 대한 비판을 즉각 수용하고 전장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대목에서도 공적을 세워 본인의 평판을 극복하겠다는 왕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래킨은 왕자가 이 대목에서 영광스러운 행위와 모욕을 상업적 교환의 대상으로 전환하며, 기사들의 전투를 치밀하게 계산된 상업적 거래로 격하시킨다고 주장한다. 그의 분석에서, 국왕의 권위를 획득하는 할 왕자는 상류층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수입을 늘리는 중산층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78-79). 할 왕자가 군주의 자질을 전적으로 노력을 통해 획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래킨의 분석은 왕자가 그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과오마저도 활용할 수 있는 인물임을 뒷받침한다.

왕자는 통치자로서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방탕했던 과거를 활용한다. 왕자의 속내를 확인하기 위해, 『헨리 4세 1부』 1막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그의 독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는 독백을 통해 본인을 공격하는 각종 오명이 차후의 개선을 위한 발판으로 쓰일 수 있음을 밝히며, 과거 그가 저지른 실책이 개선을 통해 언젠가 자신에게서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보는 이들의 혀를 찌르는 데 쓰일 것임을 주장한다.

모든 날이 휴일이라면,

노는 것도 일하는 것만큼이나 지루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가끔씩 찾아오면, 사람들의 바람 속에서 오며,

예상치 못한 사건처럼 즐거운 건 없다.

.....

내 잘못 위에 빛나는 나의 개선은
 더 훌륭해 보일 것이고, 더 많은 시선을 끌 것이다.
 돋보이게 해 주는 상대가 없을 때보다.
 나는 실책을 득이 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책을 저지를 것이며,
 사람들이 전혀 예상 못 할 때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을 것이다.
 If all the year were playing holidays,
 To sport would be as tedious as to work;
 But when they seldom come, they wish'd-for come,
 And nothing pleaseth but rare accidents:

 my reformation, glittering o'er my fault
 Shall show more goodly and attract more eyes
 Than that which hath no foil to set it off.
 I'll so offend, to make offence a skill,
 Redeeming time when men think least I will. (*1H4*

1.2.199-202, 208-12)

할 왕자는 패거리와 헤어진 후에 위의 독백을 늘어놓음으로써, 그간 본인이 보여 온, 혹은 향후 보일 방탕한 행동거지를 자신과 마주하는 이들의 예상을 뒤집기 위해 활용할 것임을 주장한다(1.2.206). 할 왕자의 계획 속에서, 그가 개심을 통해 이상적 통치자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가끔 찾아오는 휴일과 같이 대중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 (rare accidents; 1.2.202)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언젠가 방탕한 행위를 그만두고 개심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왕자는 평판이 하락한 상황을 개심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충격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할 왕자의 다짐과 이후 그가 전장에서 보이는 활약은, 과거의 방탕한 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날아오는 비난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무력의 우위를 증명함으로써 그가 통치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는 할 왕자에게 부친을 구출하고 핫스퍼를 상대하는 등의 활약을 부여함으로써, 과오를 딛고 일어서는 지도자의 면모를 강조한다. 홀린세드의 서술은 할 왕자가 슈루즈버리 전투 현장에서 부친을 도와 부하들을 독려하고 격전지에서 전투를 치렀음을 언급하지만, 셰익스피어만큼 왕자의 능동적 역할을 부각하지 않는다(191). 할 왕자는 반란군과 대면한 자리에서 핫스퍼를 용감한 군인이라 추켜세우며(5.1.86-92), 본인이 “기사도를 등한시하는” (truant . . . to chivalry; 5.1.94) 삶을 살아왔음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할 왕자는 그가 방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이를 “부끄러움” (shame; 5.1.93)이라 표현함으로써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인 핫스퍼를 높이는 태도를 취한다. 셰익스피어는 할 왕자가 적 측 장수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겸손한 태도를 과시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왕자에게 부여한다. 왕자가 핫스퍼에게 제안하는 ” 일대일 대결 “(a single fight; 5.1.100)은 사료의 기록이 아닌 창작의 결과물인데, 저자는 이러한 장치를 삽입함으로써 왕자가 무력의 우위를 겨루는 차원을 넘어 군사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5.1.99-100). 셰익스피어는 할 왕자에게 사료와 다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그가 통치자의 자질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극화한다. 국왕은 할 왕자의 기대와 달리 그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 이유를 들어 만류하고, 반란

군에게 화평 제안을 한다(5.1.102-10). 왕자의 제안은 묵살되지만, 해당 장면은 왕자가 한 사람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관객들 앞에서 보여 준다.

할 왕자가 과시하고자 하는 통치자의 이미지는 반란군인 버넌(Sir Richard Vernon)에 의해 구체화된다. 버넌은 왕자가 핫스퍼에게 "일대일 대결" (a single fight; 5.1.100)을 제안하는 모습에서 겸손함과 "인간의 도리" (all the duties of a man; 5.2.55)를 발견하고, 그가 핫스퍼의 공격을 늘어놓으며 제공한 찬사를 "군주다운 언어" (a princely tongue; 5.2.56)라 표현함으로써 왕자를 상대에 대한 예의범절을 갖춘 지도자로 파악한다. 버넌으로 하여금 무엇보다 왕자를 "군주와도 같이" (like a prince; 5.2.60) 보이게 만든 것은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그의 "게으른 청년기" (truant youth; 5.2.62)를 댕겼다는 사실이다. 왕자가 예의를 갖춰 적장을 칭송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댕치는 모습은 그가 통치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버넌에게 납득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버넌이 처음으로 왕자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은 그의 외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묘사는 왕자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는 효과를 갖는다(4.1.104-10). 그는 천상의 존재에 비견될 정도로 "화려하게 무장한" (gallantly arm'd; 4.1.105) 왕자의 모습이나, 그가 보이는 "고귀한 마술" (noble horsemanship; 4.1.110)을 언급하며 왕자가 군사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할 왕자는 "군주다운 언어"와 화려한 무장을 통해 방탕한 생활을 할 때와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왕자에 대한 평가는 "분별없는 자유" (so wild a liberty; 5.2.71)를 누리는 이에서 의견상의 위엄과 예의범절을 겸비한 모범적인 통치자로 변화한다. 왕자는 방종함으로 인해 얻은 오명을 공개적으로 시

인하고 반성하는 행위를 통해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왕자의 전략은 버넌을 비롯해 왕자를 대하는 이들의 칭송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낸다.

할 왕자와 핫스퍼의 대결은 군사적 명성을 얻고자 하는 두 기사들의 충돌이자, 할 왕자의 승리가 결과적으로 국왕 측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마상 시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예식화된 결투” (the ritualized combat; Hodgdon 323)에 가깝다. 하지던이 지적하듯, 핫스퍼와 왕자의 대결은 북부 귀족의 혈통 문화와 중앙 집중화된 국가 권력 간의 충돌이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한 상징적인 전투이다 (323). 『헨리 4세 1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왕자의 승리는 단순히 무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해 적장을 벤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별면은 셰익스피어가 슈루즈버리 전투에서 기사도와 실용주의를 긴장된 관계 속에 위치시킨다고 지적한다. 왕자는 핫스퍼를 처단함으로써 그가 지녀 왔던 명예의 원천인 “자랑스러운 칭호” (proud titles; 5.3.78)를 획득한다. 핫스퍼에게 있어 무력의 우위를 점해 얻은 칭호는 그가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기사도 정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덧없는 생명의 상실” (the loss of brittle life; 5.4.78)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다. 왕자는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부친과의 명세를 지키고, 핫스퍼가 쌓아 온 명성을 자신의 치욕과 맞바꾸는 데 성공한다. 적장을 뱀으로써 상대 장수의 명성을 이어받는다라는 관념은 중세에도 흔한 발상이었지만(Humphreys, *IH4* 150), 할 왕자는 핫스퍼의 명예를 이어받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의 평판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며, 아울러 직접 거둔 승리를 군주의 권위와 연관 짓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왕자는 핫스퍼의 딸로가 “잘못 짜인 야심” (Ill-weaved

ambition; 5.4.87)에 따라 행동한 결과임을 지적하는데, 이는 핫스퍼를 비롯한 귀족들의 반란을 국가 안위에 위협을 가한 행위로 규정하고, 절대 군주에게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위치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이다. 셰익스피어가 그리는 할 왕자의 승리는 근대 초기에 걸맞은 새로운 군주의 등장을 공포하며, 이러한 정치 구조에서는 핫스퍼로 대표되는 “영웅적 개인주의” (heroic individualism; Bulman 165)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군사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냄과 함께, 할 왕자는 2부에서 과거에 그를 투옥했던 수석 판사(Lord Chief of Justice)와 화해하여 법을 집행하는 이의 권위를 수용함으로써 군주에게 필요한 자질을 증명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왕자가 그의 추종자를 사법 처리하려던 수석 판사에게 “뺨따귀” (the box on the ear; 1.2.193-94)를 때린 결과 투옥되었던 사건은 극중에서 사건으로 재현되지 않지만, 등장인물들의 입을 빌려 간략히 언급된다. 할 왕자는 헨리 5세로 즉위한 이후 수석 판사가 그에게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보장하는 공정성을 통치자로서의 자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한다. 헨리 5세와 수석 판사의 화해와 협력은 절대 군주가 법적 원칙에 충실한 실무자를 포섭하여 통치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헨리 5세는 과거의 앙금을 완전히 잊지 않았음을 밝히며 수석 판사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지만, 즉시 태도를 전환해 법적 원칙에 입각한 그의 판단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국정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 요약하자면, 왕자와 대법관의 화해는 왕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법적 원칙을 마련하고 군주의 역할을 맡아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할 왕자와 수석 판사의 대립은 셰익스피어가 참조한 당대의 사료들에서 빈번히 발견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엘리엇이 『통치자라 이름 붙여진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일화이다. 엘리엇은 할 왕자의 사례를 들며 통치자가 갖춰야 할 정신적 자질 중 온유함(placability)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엘리엇의 글에 등장하는 할 왕자는 자신의 추종자에게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리려는 판사에게 불복하여 무기를 들고 법정에서 판사를 위협하다가, 판사의 한결같은 태도에 저항을 그만두고 판결에 따라 투옥된다(114-15). 엘리엇은 무기를 거두고 판사의 지시를 따르는 왕자나, 아들을 감싸지 않고 법의 집행을 옹호한 국왕을 예로 들며 통치자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온유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엘리엇에 따르면, 온유함이란 관용, 자비와 더불어 계급을 막론하고 필요한 가치이며, 이성이나 조언 등을 거쳐 타인에게 분노를 발산할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다(106, 111). 이 글에서 왕자는 “존귀한 판사의 놀라운 근엄함” (the marvellous gravity of that worshipful justice; 115)에 “경의를 표하며” (doing reverence; 115) 판사의 지시를 따른다. 엘리엇은 왕자를 “그의 사악한 사례와 정의에 관한 판사의 일관성을 그의 지위나 고집스런 욕구보다 더 신경 쓴” (more considered his evil example, and the judge’s constancy in justice, than his own estate or wilful appetite; 115) 인물로 규정함으로써, 그를 온유함이라는 가치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재구성한다. 엘리엇은 용맹성과 호전적 기질이 군사 지도자에게는 미덕이라 볼 수 있지만 서로에 대한 분노와 유혈 사태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위의 예시에서 제시되듯 통치자가 온유함을 배양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위해 이러한 가치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5).

엘리엇이 제시하는 불임성, 온유함, 자비 등의 가치는 할 왕자가 통치자

의 역할을 맡기 위해 함양해야 할 덕목들에 해당하기도 한다. 극중에서 요구되는 통치자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해 1부의 3막 2장에서 헨리 4세가 왕자에게 남기는 훈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왕은 리처드 2세와 자신을 비교하며,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군주에 대한 대중의 경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왕은 자신이 “쉽사리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by being seldom seen; *IH4* 3.2.46) 혜성과도 같이 보는 이들의 경외를 이끌어내고, 본인의 이름이 인구에 회자되는 효과를 이끌어냈음을 주장한다(3.2.46-49). 다음의 인용구는 헨리 4세가 군중으로부터 칭송과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예의범절과 겸손함을 갖추는 것을 군주의 중요한 덕목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모든 예의범절을 훔쳐 와
 그런 겸손함으로 내 자신을 치장했기에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충성을,
 그들의 입으로부터 드높은 환성과 인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왕관 쓴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And then I stole all courtesy from heaven,
 And dress'd myself in such humility
 That I did pluck allegiance from men's hearts,
 Loud shouts and salutations from their mouths,
 Even in the presence of the crowned king. (3.2.50-54)

헨리 4세에게 예의범절과 겸손은 인망을 얻어내기 위해 잠시 훔치고 치장하는 도구에 해당한다. 헨리 4세가 통치자로서 처신하는 법은 자신의 몸가짐을 “신선하고 새로운” (fresh and new; 3.2.55) 상태로 유지하고, “보이지 않되 놀라움의 대상이 되는” (ne'er seen but wonder'd at;

3.2.57) 것이다. 국왕은 이러한 행동 방침을 통해 본인의 지위를 “드물지만, 호화롭게, 연회와도 같이 보이” (seldom, but sumptuous, show’ d like a feast; 3.2.58)게 만들었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가끔 일어나지만 열릴 때는 화려하게 열리는 축제와도 같이, 평소에 눈에 띄지 않다가 낮은 빈도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세간의 찬사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왕은 세간의 경외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리처드 2세를 “뛰어노는 왕” (the skipping King; 3.2.60)이라 규정한다. 그가 보기에, 리처드 2세는 하층민들과 어울림으로써 군주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한 왕이다. 국왕은 리처드 2세가 대중의 경외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는 것은 “그의 위엄을 뛰어노는 바보들과 뒤섞음” (mingled his royalty with capering fools; 3.2.63)으로 인해 벌어진 일로 파악하며, 할 왕자 역시 방탕한 무리와 어울림으로써 군주의 권위를 상실하고 리처드 2세가 저지른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3.2.85-87).

할 왕자는 군중을 대하는 관점에서 국왕과 차이를 보이는데, 그는 개심을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 칭하는 1부의 독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군중 앞에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부친이 경멸하는 “천박한 교제” (rude society; 3.2.14)를 활용하여 통치자의 자질을 학습하고, 개심한 자신이 세간에 줄 충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틸야드(E. M. W. Tillyard)는 왕자가 자주 방문하는 이스트칩(Eastcheap)의 술집이 그가 방종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인식을 세간에 심어주는 장소인 동시에, 왕자가 하층민들과 술을 마시고 친해짐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사고 방식을 배우는 장소임을 지적한다(280). 왕자는 평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본인이 “종업원 셋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 (sworn brother to a leash of drawers; 2.4.6-7)임을 자랑하고, “그

어떤 땀장이와도, 그의 언어를 구사하며 술을 마실 수 있다” (I can drink with any tinker in his own language; 2.4.18-19)는 점을 강조하며 그가 평민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능력이 있음을 과시한다. 왕자는 작품 곳곳에서 음주 등의 사소한 생활 습관에 녹아 있는 본인의 평민적 취향을 드러내거나 지적받기에(1H4 1.3.230, 2H4 2.2.9-11), 자신을 평민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왕자가 술집에서 꺼내는 발언들은 통치자의 위치를 언젠가 회복할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그가 평민의 일상과 사고방식을 파악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할 왕자는 위의 사례들이 보여 주듯 하층민들과 어울리는 행위를 국왕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위신의 하락이 아니라, 통치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파악한다. 왕자와 국왕이 가진 관점의 차이는 2부의 4막 4장에서 아들에 대한 헨리 4세의 걱정 에 워릭(Warwick)이 답변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할 왕자가 전장에서 공을 세운 이후에도 국왕의 걱정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국왕은 할 왕자가 하층민 패거리와 어울리는 것은 풍요로운 땅에 잡초가 낀 상황과 같이 본인이 생각하는 군주의 역할과 맞지 않기에(2H4 4.4.54-57), 왕자가 즉위한 후 방종함으로 인해 “인도되지 않는 날들과 부패한 시대” (the unguided days / And rotten times; 4.4.59-60)가 올 것을 걱정한다. 워릭은 국왕과 달리 왕자의 교제가 지위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왕자가 하층민들과 어울리며 얻은 깨달음을 차후의 통치 행위에 활용할 것이라 예측한다.

왕자님은 단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이

그의 동료들을 연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상스러운 말 또한
보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표현은 습득되면,
폐하도 아시다시피, 더 이상 이용되지 않고,
알되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The prince but studies his companions
Like a strange tongue, wherein, to gain the language,
'Tis needful that the most immodest word
Be look'd upon and learn'd; which once attain'd,
Your highness knows, comes to no further use
But to be known and hated. (2H4 4.4.69-73)

워릭은 왕자의 어울림을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 상스러운 표현을 “보고 배우는 것”에 비유하며, 통치자의 자질을 학습하는 과정의 일부로 파악한다. 워릭의 논변에서 왕자의 동료들은 습득되는 순간 이용 가치를 상실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상스러운 언어 취급을 받으며, 왕자가 통치자의 위치에 오르는 순간 왕자와 어울릴 수 없다. 1부 초반의 독백에서 밝힌 대로, 왕자는 방탕한 무리와 어울림으로써 얻는 오명을 그가 통치자의 본분을 회복할 때를 대비한 배경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자신이 군주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그들과의 교제 역시 끝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렇기에 헨리 4세는 백성들을 본인을 돋보이게 하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할 왕자는 직접 하층민들과 교류하며 문화를 배워 통치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왕자는 통치자의 위치에 올라 타인의 삶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할 때 그와 교류했던 평민들에 대한 기억을 “유형이나 잣대”(a pattern or a measure; 4.4.75)으로 활용할 것이다(4.4.75-77). 워릭의 예측이 내리는 결론은 왕자가 권력을 잡을 때 평민들과의 인간적 교류를

중단할 것이며, 백성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대한 경험을 통치에 활용하며 “과거의 해악” (past evils; 4.4.78)을 “이득” (advantages; 4.4.78)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수석 판사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서, 수석 판사는 그간 왕자가 쌓아온 탕아라는 평판을 버리고 통치자의 면모를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에 대한 극중 최초의 묘사는 2부에서 폴스태프의 시동이 그와 마주치면서 그를 “바돌프 관련 사건에서 본인을 때린 대가로 할 왕자를 투옥한 귀족” (the nobleman that committed the Prince for striking him about Bardolph; *2H4* 1.2.55-56)이라 설명하는 부분이다. 수석 판사에 따르면, 할 왕자의 투옥은 국왕의 “대리자” (image; 5.2.74)로서 법을 집행하던 대법관을 왕자가 구타함으로써 “법과 정의의 지엄함과 권위” (the majesty and power of law and justice; 5.2.78)를 훼손한 대가로 집행된 결과이기에 정당한 법적 절차이다. 엘리엇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수석 판사 역시 자신이 “국왕의 위치” (the place of the King)에 서서 할 왕자의 “고집과 비합법적인 계획” (wilfulness and unlawful enterprise)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강조한다(114). 위의 서술들을 종합하면, 판사가 법적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국왕의 권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적 절차의 집행은 군주의 권위가 뒷받침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수석 판사는 “공정한 평가” (a level consideration; 2.1.111-12)를 우선시하며 법과 정의가 군주의 권위를 포함한 그 어떤 가치보다 상위에 있음을 강조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법의 권위 역시 효력을 보장받으려면 군주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판사가 내리는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이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그가 국왕의 권위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위 계

승 소식을 접한 수석 판사의 불안감 역시 할 왕자를 투옥했던 그의 과거 행적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알 수 없기에 발생하는 것이다(5.2.19).¹⁶⁾ 헨리 4세의 권위를 대리하여 법적 절차를 집행하던 판사는 헨리 4세가 사망함에 따라 ” 모든 해악에 노출 “(open to all injuries; 5.2.8)되어 있음을 절감한다. 하지만 그는 새로 즉위한 국왕을 향해 법 집행자의 권위를 보장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수석 판사는 헨리 5세에게 국왕과 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방종한 아들이 있음을 가정해 보고, 본인이 국왕의 권위를 대신해 그 아들을 막은 경우를 고려한 뒤에 처벌을 내릴 것을 주문한다(5.2.92-97). 이를 통해 그는 과거에 왕자를 투옥한 행위가 군주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주장하며, 법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고는 군주의 권위 역시 바로 설 수 없음을 국왕에게 일깨우고자 한다.

셰익스피어는 작중의 헨리 5세가 수석 판사의 사법권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할 왕자와 판사의 오랜 갈등이 끝날 뿐만 아니라, 왕자가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모범적인 통치자의 면모를 갖춘다는 것을 보여 준다. 2부 5막 2장의 전반부에서 국왕의 형제들과 관료들은 헨리 4세의 사망과 헨

16) 셰익스피어가 참조한 사료들에서도 헨리 5세와 수석 판사의 관계를 다루는데, 홀린세드는 헨리 5세가 수석 판사를 추방하고 그 자리에 본인의 아우인 클레런스 공(duke of Clarence)을 앉혔음을 기록하고 있다(280). 작자 미상의 『헨리 5세의 유명한 승리들』(*The Famous Victories of Henry the Fifth*, 이하 *FV*)에서는 할 왕자가 자신을 따르는 도둑을 재판정에서 데리고 나오려다 수석 판사와 시비가 붙어 그를 구타하는 장면이 극화된다(*FV* 311-73). 수석 판사에 의해 투옥되었던 도둑은 풀려 나오며 헨리 4세의 사후 수석 판사가 헨리 5세의 눈치를 보고 자신을 풀어 줬음을 설명한다(693-97). 판사의 조치가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알 수 없지만, 헨리 5세로 즉위한 왕자는 프랑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판사를 섭정으로 임명하여 그의 지위를 보호한다(884-90). 사료들은 수석 판사가 맞게 되는 여러 종류의 운명이 군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 주며, 셰익스피어가 극화하는 판사의 불안감 또한 본인에 대한 군주의 처우를 고려한 것임을 입증한다.

리 5세의 즉위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헨리 5세의 행실에 대한 불안이 해당 대화의 주된 소재이다. 워릭과 수석 판사는 모든 것이 뒤집히고 과거에 헨리 5세와 어울리던 저급한 이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하며 불안감을 표시한다(5.2.17-19). 특히 수석 판사는 위에서 지적했듯 과거의 행적 때문에 국왕의 총애를 기대할 수 없으며, 본인의 입지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5.2.9, 31). 헨리 5세는 그를 투옥한 수석 판사로 인해 “크나큰 치욕” (great indignities; 5.2.69)을 입은 데 대한 반감을 드러내지만, 판사의 항변을 듣고 그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인정한다. 수석 판사는 결과적으로 “결점 없는 검” (the unstained sword; 5.2.115)으로 상징되는 법 집행 권한을 헨리 5세로부터 보장받는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가 수석 판사를 “아버지” (father)라 칭하며 그의 조언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장면(5.2.118-21)을 제시함으로써 그에게 치욕을 주었던 이를 “대담하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정신” (bold, just and impartial spirit; 5.2.116)으로 대우하는 헨리 5세의 수완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헨리 5세는 국정 조연자이자 법의 집행자를 측근으로 둬으로써 통치자의 위상을 확립하고, 수석 판사는 군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그의 지위를 보존한다.

헨리 5세의 대관식에서 벌어지는 폴스테프의 추방은 할 왕자가 절대 군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틀을 갖추는 마지막 절차라 할 수 있다. 헨리 5세는 폴스테프에게 “당신을 모른다” (know thee not; 2H4 5.5.47)고 알림으로써 과거에 자신과 어울렸던 패거리와의 관계를 청산한다. 군주로서 ” 세간의 예상을 조롱하고, 예언을 꺾고 불쾌한 여론을 지우기 위해” (To mock the expectation of the world, / To frustrate prophecies and to raze out / Rotten opinion; 5.2.126-28), 헨리 5세

는 그와 방탕한 생활을 함께했던 인물들을 추방하고, 이들에게 궁정 주변에 접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다. 헨리 5세는 본인의 즉위 소식을 듣고 국왕을 칭송하며 다가오는 폴스태프를 향해 술집에서 어울리던 시절의 자신을 기대하지 말라고 답변한다.

나는 그런 종류의 인간에 관한 꿈을 오랫동안 꾸고 있었다.

과식으로 인해 부풀어 오르고, 늙고, 비속한 인간.

그러나 깨어난 뒤에는 내 꿈을 경멸한다.

.....

나를 과거의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신이 아시기에, 세상도 깨달을 것이다.

내가 과거의 자신을 떠나보냈음을,

그렇게 나와 동료였던 이들도 떠나보낼 것임을.

I have long dream'd of such a kind of man,

So surfeit-swell'd, so old and so profane;

But, being awaked, I do despise my dream.

.....

Presume not that I am the thing I was;

For God doth know, so shall the world perceive,

That I have turn'd away my former self;

So will I those that kept me company. (5.5.49-51, 56-59)

그는 “천박한 교제”를 청산함으로써 통치자의 권위를 대중 앞에서 공개한다. “내 방종함을 가르치고 장려하는 자” (the tutor and the feeder of my riots; 5.5.62)는 대중에게 흠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군주의 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헨리 5세는 폴스태프와 어울렸던 그의 과거를

“꿈”에 비유하며, 통치자의 위치에 선 그가 방종했던 과거를 경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일과 같이 필연적인 결과임을 주장한다. 그는 과거의 동료들을 추방함으로써 방탕한 삶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으며, 자신이 통치자의 덕목에 충실한 군주로 개심했음을 대중 앞에서 선포한다. 코언이 지적하듯, 할 왕자는 과거에 누리던 자유를 기꺼이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킴으로써 본인의 도덕적 책임을 증명한다(Cohen 225).

국내의 반란군 세력을 억누름과 함께 헨리 5세는 “내전의 칼날과 이 땅의 불길” (civil swords and native fire; 5.5.106)을 프랑스로 돌릴 계획을 세운다. 헨리 5세의 원정 계획은 2부의 마지막에 존 왕자의 대사를 통해 언급되는데, 반란군의 진압 이후에도 불만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에 이들의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헨리 5세가 원정을 추진하는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친인 헨리 4세의 예루살렘 원정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헨리 4세는 『헨리 4세 1, 2부』가 진행되는 동안 성지 원정을 목표로 제시하지만(1H4 1.1.19-27, 2H4 3.1.107-08, 4.4.1-4), 혼란한 국내 정세와 본인의 병환으로 인해 계획을 끝내 실현하지 못한다. 셰익스피어가 예루살렘 원정을 다루는 방식은 그가 참조한 사료와 차이를 보인다. 홀린세드에 따르면 성지 원정은 반란군 진압 후 헨리 4세의 치세 말기인 1413년에 열린 위원회(a councell)에서 논의되나, 헨리 4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중단된다(276-77). 이와 대조적으로,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는 리처드 2세의 사망이 확인된 후 왕위를 찬탈하고 그를 살해한 데 대한 죄를 씻고자 성지 원정을 계획하며(R2 5.6.49-50), 이를 『헨리 4세 1, 2부』 전체에 걸쳐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는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4세의 원정 계획을 극의 전반에 걸쳐 언급되는 문제

로 설정함으로써, 그의 계획이 선왕에 대한 속죄뿐만 아니라 영국 내부의 불만을 무마하고 절대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다. 헨리 4세는 과거에 국왕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힘을 빌렸던 귀족들에 의해 본인이 폐위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피하기 위해, 그들을 제거하고 다수를 성지로 이끌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한다(4.5.206-10). 헨리 4세의 목표는 성지 원정을 추진함으로써 귀족을 비롯한 잠재적인 불만 세력의 주의를 국외의 “이교도” (pagans; *1H4* 1.1.24)들에게 돌려 “휴식과 수면이 그들로 하여금 짐의 지위를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게 하지 못하도록” (Lest rest and lying still might make them look / Too near unto my state; *2H4* 4.5.211-12) 하는 것이다. 그는 차후 즉위할 할 왕자에게 그의 지위 역시 “불만이 성행하고 있기에 충분히 굳건하지 못할 것” (not firm enough, since griefs are green; 4.5.203)임을 주지시키며, 해외 원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만 세력에게 국내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틈을 주지 말 것을 권고한다.

그러므로 나의 해리야,

들뜬 마음들을 분주하게 만드는 걸 네 방침으로 삼거라.

외적과의 다툼을 이용해서 말이다. 그렇게 옮겨진 교전들이

지난날의 기억들을 지워 버릴 것이다.

Therefore, my Harry,

Be it thy course to busy giddy minds

With foreign quarrels; that action, hence borne out,

May waste the memory of the former days. (4.5.212-15)

위의 인용구에서 확인 가능하듯, 성지 원정의 핵심은 “외적과의 교전”에 참여한 영국의 구성원들이 “지난날의 기억,” 다시 말해 영국 내에서 국왕

의 정통성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과거 사건들을 잊게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절대 군주는 국내의 불만들을 억누르고 본인의 지위를 굳건히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성지 원정 계획을 제외한 헨리 4세의 전반적 정책은 극중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이 계획은 극중에서 확인 가능한 그의 유일한 대외 정책으로서 상징적 위치를 갖는다.¹⁷⁾ 셰익스피어의 헨리 4세는 성지 원정을 통해 본인이 “그리스도의 묘”(the sepulchre of Christ; *IH4* 1.1.19)를 수호하는 참된 기독교도 군주임을 주변국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잉글랜드를 통치하는 절대 군주의 권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헨리 4세에게 있어 성지 원정은 귀족들의 무력 과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소를 해외에 마련해 줌으로써 국내의 소란을 향한 관심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다. 셰익스피어는 국왕이 후계자에게 해외 원정을 통해 왕권을 수호할 것을 당부하는 유언을 남기게 함으로써 군주의 자리가 갖는 불안정한 성격을 재차 강조한다. 왕자 또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권위가 “명백하고 정당한”(plain and right; 4.5.222) 것임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는 “전 세계에 맞서”(‘gainst all the world; 4.5.224) 절대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써야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헨리 4세 뿐만 아니라 할 왕자 역시 쉽 없이 왕권을 지키기 위한 무력 충돌을 일으켜야 한다.¹⁸⁾

17) 홀린세드는 헨리 4세가 본인의 왕위 찬탈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을 처벌한 점 외에도 재위 기간 동안 세금, 지대, 특별 보조금, 강제징수 등 온갖 명목으로 국민들로부터 재물을 무리하게 징수함으로써 상당한 반발을 낳았다고 지적한다(279). 『헨리 4세』에서 국왕의 조세 정책과 그에 대한 반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셰익스피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로빈 오슬러(Robin Ostler)의 사망(*IH4* 2.2.11-12), 내전의 생존자들에게 찾아올 비참한 삶(5.3.37-38) 및 질병 과정에서 만연한 비리(*IH4* 4.2.11-37, *2H4* 3.2.238-40) 등 잉글랜드 내부의 비참한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극 속의 내정 실태를 짐작하고 통치자에게 비판적 시선을 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18) 헨리 5세는 『헨리 5세』(*Henry V*, 이하 *H5*)에서 프랑스군과의 전투를

할 왕자는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무력과 통치술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군주의 자리에 오르면서 중앙집권적 권력을 획득하지만, 그의 권위는 여전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헨리 5세는 방탕한 삶으로 인해 얻은 오명을 발판 삼아 개심한 군주의 모습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안정적인 군주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헨리 4세의 의지를 이은 그의 대내외 정책은 군주가 국내의 불만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방책을 고안하여 군주의 위치가 갖는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셰익스피어는 할 왕자의 행적을 극화하며, 근대 초기의 영국에는 봉건 귀족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군주가 필요했음과, 권력이 집중된 절대 군주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함을 인정하면서도, 군주가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보여 준다.

앞두고 성 크리스핀 축일(St. Crispian's Day)에 연설을 남기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수행하는 전투가 곧 개인에게도 명예로운 전투로 남을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군주의 불안정한 위치를 극복하고 전장에 모인 이들의 관심을 전쟁이라는 목표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는 전장을 목격하고 살아남은 이들이 당시에 입은 상처를 통해 명예로운 업적들을 기억할 것임을 강조한다(H5 4.3.44-51). 헨리 5세의 연설에 따르면, “형제의 유대”(band of brothers; 4.3.60)는 자신을 포함해 전투를 앞두고 모인 군인들이 평등한 위치에 서게 하고, “오늘 나[국왕]와 함께 피를 흘린 자”(he to-day that sheds his blood with me[King]; 4.3.61)들은 천한 태생이라 해도 귀족의 위치에 올라 설 수 있을 정도로 신분의 경계를 넘을 기회가 주어진다(4.3.62-63). 헨리 5세는 국가가 얻을 승리가 개인의 명예로 이어질 것을 강조하며, 전쟁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장에 모인 이들을 통합하는 군사 지도자의 면모를 발휘한다.

4. 결론

셰익스피어의 제2 사부작에 등장하는 헨리 4세와 헨리 5세는 영국이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중앙집권적 군주가 등장하던 당대의 정치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셰익스피어가 살던 당시의 영국은 봉건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의 전환을 맞이하며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근대 국가는 토지, 자본, 노동력 등의 생산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를 필요로 했으며, 이는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배경이 되었다. 사회 변화에 따라 봉건 영주들은 절대 군주 휘하의 행정 관료로 편입되며, 이 과정에서 궁정 문화가 형성되었다. 튜더 왕조의 군주들 또한 예외가 아니기에, 봉건 귀족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중앙 행정 구조에 소속시킴으로써 중앙집권적 권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작중의 헨리 4세와 헨리 5세는 반란 귀족들에 맞서 중앙집권적 군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국가 내부를 안정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변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봉건 귀족들은 과거에 누리던 영광을 되찾고자 군주에게 반기를 들지만, 군주에게 제압된 이후 중앙집권적 질서에 편입된다. 그런 점에서 16세기 말 서유럽에서 유행한 역사극들을 절대 왕권의 등장과 연관 지어 분석한 코언의 논의는 의의를 가진다. 물론 절대 왕정을 귀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단정하는 것은 도식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코언의 논의는 16세기 말의 역사극을 읽을 때 중앙집권적 군주의 등장이라는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

『헨리 4세』 연작은 절대 군주의 등장으로 인해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봉건 귀족들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작중 귀족과 국왕의 대립은 북부 귀족의 혈통 문화와 중앙집권적 권력 간의 투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귀족들

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반란을 일으키지만, 잉글랜드 북부 귀족들, 웨일즈 군, 스코틀랜드 군 등 다양한 집단이 모인 반란군 내부에서 끊임없이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더하여 일부 귀족들의 기회주의적 보신 행위는 국왕의 군대에 맞서는 귀족들의 전의를 상실케 한다. 귀족들은 상충하는 개인적 목표들을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 핫스퍼는 성급하고 저돌적인 기질로 인해 아군인 귀족들에게조차 지적을 받지만, 과거에 누렸던 특권을 되찾고자 하는 전형적인 봉건 귀족이라 볼 수 있다. 핫스퍼는 할 왕자에 의해 전장에서 사망하며, 그의 최후는 국왕과 영주들의 권력이 분권화되는 봉건 정치가 종말을 고하고 절대 왕권이 권력의 우위에 설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헨리 부자에 의해 반란이 진압되며 봉건 귀족은 영향력을 상실하지만, 반란을 일으킨 이들이 과거에 블링브로크가 왕위를 찬탈하는 데 도움을 준 공신들이라는 사실은 헨리 4세의 불안감을 심화시킨다. 귀족들의 존재는 군주가 자신을 도왔던 세력에 의해 언제나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영국 내에서 불만 세력으로 남아 군주가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군주에게 상기시킨다.

세익스피어는 할 왕자의 행적을 조명함으로써 그가 과오마저도 통치에 활용하는 중앙집권적 군주로 성장함을 보여 준다. 헨리 4세는 아들이 폴스테프 패거리와 강도 행각을 모의하고 술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국가의 위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왕자는 하층민과 어울림으로써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활양식을 습득하지만,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친은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을 지휘하게 되자, 할 왕자는 방탕한 생활을 보란 듯이 청산하고 유능한 군사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한다. 세익스피어

는 튜더 시대에 집필된 역사서들에 기록된 내용들을 재가공하여 할 왕자의 공적들을 추가함으로써 극중 왕자가 통치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할 왕자는 과거 본인에게 투옥 판결을 내렸던 수석 판사와 화해하고, 함께 어울렸던 이들을 추방하고 관계를 끊음으로써 군주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대중 앞에 공포한다. 헨리 4세는 예루살렘 원정을 계획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하고, 아들인 헨리 5세가 프랑스를 침공함으로써 국내의 불만 세력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헨리 5세는 용맹성과 지략을 겸비한, 군주를 향한 마키아벨리의 조언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앙집권적 군주이다. 헨리 5세가 보이는 절대 군주의 면모는 『헨리 4세』 연작의 후속작인 『헨리 5세』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헨리 5세는 프랑스 침공을 앞두고 징집된 군인들에게 전장에서 싸운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유대를 강조하며, 국가가 얻은 승리가 개인의 명예로 이어질 것임을 이들에게 납득시키고자 한다. 그는 전쟁을 통해 국가 내 구성원들의 통합을 이끌어내려 하지만, 귀족과 평민 양쪽으로부터 절대 군주의 지위를 뒤흔드는 위기에 직면한다. 국왕은 출정 전에 반란을 시도한 관료들을 색출하여 처단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 사건은 영국 내부에 군주의 지위를 노리는 불만 세력이 건재함을 보여 준다. 프랑스의 막사에서 변장을 한 채 병졸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그는 윌리엄스(Williams)를 비롯한 군인들로부터 전쟁에 백성을 동원하는 행위의 명분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셰익스피어는 절대 왕권에 대한 귀족과 평민 양쪽의 도전을 조명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군주가 집중된 권력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려 하지만 그 지지 기반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4세와 헨리 5세를 비롯한 과거의 군주들을 무대로 불

러 옴으로써, 구교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과 국내 귀족들의 반란에 직면한 튜더 왕조를 관객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이 그리는 군주들은 봉건 귀족의 몰락 이후 절대 군주의 권력 유지와 국가의 통합에 대해 고민한다. 작중의 군주들은 더 이상 봉건 영주 중 한 명이 아니며, 행정 기관을 통해 국가 전체를 관리하는 통치자이다. 그렇기에 관객들은 이들에게서 중세로부터 근대 초기로의 전환기를 거치며 중앙집중적 권력을 확보하여 근대 초기의 국가 형태를 갖추하고자 한 16세기 말의 군주를 발견할 수 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권력을 집중하려는 군주들의 시도가 언제나 성공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요컨대 셰익스피어는 중앙집권적 군주들이 권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그리면서도, 그들이 거둔 승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인 용 문 헌

일차문헌

- Ascham, Roher. *The Schoolmaster*. Hodgdon 281–91. Print.
- Bullough, Geoffrey, ed. *Narrative and Dramatic Sources of Shakespeare*. Vol. IV. London: Routledge, 1966. Print.
- Castiglione, Baldessare. *The Book of the Courtier*. Trans. Charles S. Singleton. Ed. Daniel Javitch. New York: Norton, 2002. Print.
- Daniel, Samuel. *The First Fowre Bookes of the Civile Wars Between the Two Houses of Lancaster and Yorke*. Bullough 208–15, 282–86.
- Elyot, Thomas. *The Book Named the Governor*. Ed. S. E. Lehmborg. London: Dent, 1966. Print.
- The Famous Victories of Henry the Fifth*. Bullough 299–343.
- Hodgdon, Barbara, ed. *The First Part of King Henry the fourth*. By William Shakespeare. Boston: Bedford, 1997. Print.
- Holinshed, Raphael. *The Third Volume of Chronicles*. Bullough 180–96, 268–81.
- Machiavelli, Niccolo. *The Prince*. Ed. Quentin Skinner and Russell Price. Cambridge: Cambridge UP, 1988. 119–38. Print.
- Shakespeare, William. *The First Part of King Henry IV*. Ed. A. R. Humphreys. London: Methuen, 1961. Print.

- . *Henry V*. Ed. J. H. Walter. London: Routledge, 1988. Print.
- . *Richard II*. Ed. Peter Ure. London: Routledge, 1989. Print.
- . *The Second Part of King Henry IV*. Ed. A. R. Humpherys. London: Methuen, 1966. Print.

이차문헌

- 페리 앤더슨. 김현일 역.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 서울: 현실문화, 2014. 인쇄자료.
- Anderson, Perry.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 London: NLB, 1974. Print.
- Bevington, David. “Introduction.” *Henry IV, Part I*. By William Shakespeare. New York: Oxford UP, 2008. Print.
- Bulman, James C. “*Henry IV, Parts 1 and 2*.” *The Cambridge Companion to Shakespeare’s History Plays*. Ed. Michael Hattaway. London: Cambridge UP, 2002. 158–76. Print.
- Cahill, Patricia A. “National Formation and the English History Plays.” Dutton and Howard 70–93. Print.
- Campbell, Lily B. *Shakespeare’s Histories: Mirrors of Elizabethan Policy*. 1947. London: Routledge, 2005. Print.
- Cohen, Walter. *Drama of a Nation: Public Theater in Renaissance England and Spain*. Ithaca: Cornell UP, 1985. Print.
- Crewe, Jonathan. “*Henry IV, Part 2: A Critical History*.” Dutton and Howard 432–50. Print.
- Dollimore, Jonathan. “Introduction: Shakespeare, Cultural

- Materialism and the New Historicism.” *Political Shakespeare: New Essays in Cultural Materialism*, Ed. Jonathan Dollimore and Alan Sinfield, Manchester: Manchester UP, 1985. Print.
- Dutton, Richard and Jean E. Howard, eds. *A Companion to Shakespeare's Works Vol. 2: The Histories*. Massachusetts: Blackwell, 2003. Print.
- Hattaway, Michael. “Blood Is Their Argument: Men of War and Soldiers in Shakespeare and Others.” *Religion, Culture and Society in Early Modern Britain: Essays in Honour of Patrick Collinson*. Ed. Anthony Fletcher and Peter Roberts. New York: Cambridge UP, 1994. 84–101. Print.
- Holderness, Graham. *Shakespeare's History*. New York: St. Martin's, 1985. Print.
- James, Mervyn. *Society, Politics and Culture: Studies in Early Modern England*. New York: Cambridge UP, 1986. Print.
- Kastan, David Scott. “‘The King Hath Many Marching in His Coats,’ or, What Did You Do in the War, Daddy?” *Shakespeare Left and Right*. Ed. Ivo Camps. New York: Routledge, 1991. 241–58. Print.
- . “Proud Majesty Made a Subject: Shakespeare and the Spectacle of Rule.” *Shakespeare Quarterly* 37.4 (1986), 459–75. Print.
- Knowles, James. “*1 Henry IV*.” Dutton and Howard 413–31. Print.

- McAlindon, Tom. *Shakespeare's Tudor History: A Study of Henry IV, Parts 1 and 2*. Aldershot: Ashgate, 2001. Print.
- Ornstein, David. *A Kingdom for A Stage*. Ohio: Arden, 1988. Print.
- Parvini, Neema. *Shakespeare's History Plays: Rethinking Historicism*. Edinburgh: Edinburgh UP, 2012. Print.
- Pollnitz, Aysha. "Educating Hamlet and Prince Hal." *Shakespeare and Early Modern Political Thought*. Ed. David Armitage, Conal Condren and Andrew Fitzmaurice. Cambridge: Cambridge UP, 2009. 119–38. Print.
- Rackin, Phyllis. *Stages of History*. Ithaca: Cornell UP, 1990. Print.
- Stone, Lawrence. *The Crisis of Aristocracy, 1558–1641*. Oxford: Clarendon, 1965. Print.
- Tillyard, E. M. W. *Shakespeare's History Plays*. 1944. New York: Penguin, 1991. Print.

Abstract

The Birth of the Prince: Representation of Early Modern Monarchy in Shakespeare's *Henry IV Part 1 & Part 2*

Ho-joon Ja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focuses on Shakespeare's history plays, which reflect the early modern age when the political structure was reformed into the monarchy-centered one. England in this period was the site where feudal aristocrats lost their influence and the centralized government, with the absolute monarchy, appeared. Accommodating the capitalistic economic structure, the state then needed factors of production such as land, capital, and workforce. In *Henry IV Part 1 and Part 2*, Shakespeare studies the advent of absolute monarchy in early modern England by covering the chronicles of Henry IV and Henry V.

Feudal aristocrats rebel against the absolute monarchy to retrieve

the privileges they enjoyed in the past, gradually lose their influence through the continuous defeat in battles. The conflict between aristocrats tied with lineage and the absolute monarchy was the main issue not only in the Middle Ages but also in the reign of Tudor monarchy. Henry IV and Henry V nullify the power of these aristocrats by ceasing the rebellion through the victories in battles, but the fact that those who helped the usurpation of Henry Bolingbroke rebelled against the state intensifies the agony of Henry IV. The seeds of dissidents still remain firmly and remind the prince that they would be the impediment in the unification of society by the prince.

Meanwhile, Shakespeare depicts Prince Hal as the one who grows into the centralized prince, showing the Machiavellian aspect of utilizing previous mistakes in governance. Commanding the king's army against the rebel force, he demonstrates his ability as a competent commander. In contrast with his father who emphasized keeping distant from the crowd, Prince Hal acquires the fundamental elements of governance and the culture of the low class by communicating with them in taverns. Simultaneously, Shakespeare raises question about what the prince should do to keep his power stable by depicting Henry V'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Shakespeare considers Henry IV and Henry V as the princes in 16th century who passed the transition from the Middle Ages to the early modern period, and attempted to acquire the centralized power.

Depicting the process of the rise of the centralized monarchy, the playwright, however, shows that their victories are not perfect ones.

keywords : Shakespeare, *Henry IV Part 1 & Part II*, feudal aristocracy, absolute monarchy, Machiavellism, early modern state

Student Number : 2014–20090